

이번 호에서

청년 성인



성약의 자매들

지역, 연령, 삶의 환경은 서로 다르지만,
모든 여성에게는 복음 안의 자매들이
있습니다.

42쪽

청소년



50쪽

진정한 배움의 길

교육을 받는 것은 좋은 점수를 받거나
학교를 마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어린이

연차 대회에서 받은 응답

증조할머니는 행복하십니까? 아빠는 연차
대회 동안 제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7쪽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리아호나

오늘날의 구원 사업과
물몬경 시대의 구원
사업, 22쪽

외설물의 실체를
직시하라, 14쪽

すすめ(스스메): 신앙으로
나아가라, 58쪽





“고치를 깨고 나오려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
나비가 생기는 것이며
그런 후에야 그 나비는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역경이 없다면,
나비는 결코 그 운명을
성취할 힘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비범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결단코
힘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워스린(1917-2008)
장로, “안전한 항구를
찾음”, 리아호나, 2000년
7월, 72쪽.

통찰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장래의 일들이 잘되어 갈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 제 말씀의 요지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그것도 필요의 시기에 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도움이 있습니다. 행복도 있습니다. ……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러서면 안 [됩니다.] 계속 걸어가[십시오.] 계속 노력해 [보십시오.] …… [결국에는] 모든 것이 잘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장래[에] 좋은 일[이 생기리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 어떤 축복은 곧 오며, 어떤 축복은 나중에, 그리고 어떤 축복은 하늘에 이를 때까지 오지 않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에게는 [축복]이 옵니다.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우리는 준비되었습니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
보혜사

특집 기사

- 14 숨은 상처를 치유하라
제니퍼 그레이스 펠런
대부분의 십 대들은 18세 이전에
외설물을 접하게 된다. 우리 자녀들이
효과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도구들에
대해 알아본다.
- 20 유익한 활동으로 청소년들을
강화합시다
마이클 매드슨
새로운 청소년 활동 웹사이트를
클릭하십시오! 우리 청소년들이
복음을 실천하고 장차 맡게 될 역할을
준비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알아보시다.
- 22 구원 사업: 그때도 지금도
엘 휘트니 클레이튼 장로
오늘날 구원 사업을 진척하고자 할 때,
물문경에 나오는 여러 모범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 26 각국의 개척자들:
한국의 교회—혼돈과 어려움의
시기에 비친 복음의 빛
서희철
어려운 시절을 견뎌 낸 초기 회원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 교회는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

- 32 남성과 여성, 그리고 신권 권능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여성들의 필수적인 역할에 대해
여성과 남성 모두가 이해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교회 본부 기사

- 8 2014년 4월 연차 대회 노트
- 10 우리의 믿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 12 구약의 선지자들: 이사야
- 13 복음 학습: 교회 자료
- 종이책으로? 아니면 디지털로?
- 38 후기 성도의 소리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보기 드문 젊은이들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

표지
앞표지 삽화: 성전에서 가르치는 니파이, 덴 버.
앞표지 안쪽 사진 삽화: 브래들리 슬레이드.
뒷표지 안쪽 사진 삽화: 데이비드 스토커.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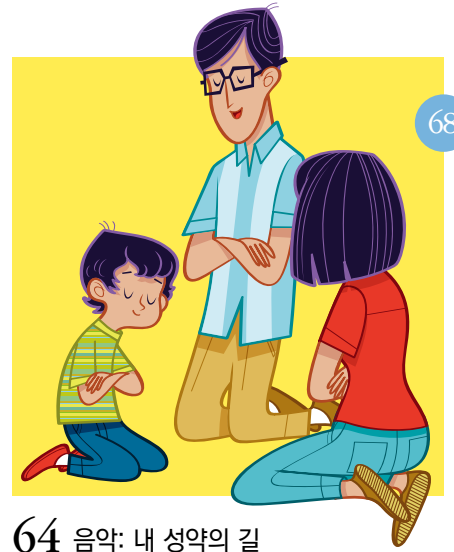
- 42 성약의 자매들
에멀린 알 윌슨
우리가 침례 성약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우리의 자매에, 그 다섯 가지 방식.
- 46 청년 성인 소개: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는 토론토
캐서린 넬슨
캐나다 온타리오에 사는 충실한 청년 성인의 삶은 어떤 것일까?



50

- 48 인생의 기회를 위해 준비함
숙제를 마치기 위해 걱려가 필요한가요? 제일회장단의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 50 진정한 배움의 길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배움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성적만이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 53 포스터: 더 큰 즐거움 속으로
- 54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친구들에게
리처드 엠 롬니
복음을 나눌 때, 질문에 답하지 말고 사람에게 답하는 법을 터득하라.
- 56 내 선택은 한 가지뿐이었다
조셉 센구바
같은 반 친구들에게 나의 표준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것이 학교 전체를 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 57 해답을 찾아서
- 58 すすめ(스스메!)
가즈히코 야마시타 장로
전설적인 사무라이에게서 꾸준한 신앙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 61 친구를 위해 얼마처럼 기도했다
다니엘 마우리시오 도스 산투스
친구는 일요일에 교회에 올 일을 없을 거라고 말했다. 기도가 도움이 될까?
- 62 진정한 인기의 열 가지 비결
커스 캠벨
친구 사귀는 비결을 신약전서에서 배울 수 있을까?

이번 호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단서: 발자국을 따른다.



68

- 64 음악: 내 성약의 길
마빈 케이 가드너와 빈야 와이 왓킨스
- 66 특별한 증인: 왜 계명에 순종해야 할까요?
엘 톰 페리 장로
- 67 연차 대회에서 받은 응답
애비 에이치
에드워즈 증조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행복하셨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68 노란색 표지의 책
란돌 살라자르 키로가
란돌이 좋아하는 책을 잃어버렸다. 삼촌이 도와줄 수 있을까?
- 70 전 세계 친구들: 저는 한국에 사는 루카입니다
애미 제인 레빗
- 72 우리들 이야기
- 73 빛나는 아이디어
- 74 가정에서 초등학교 적용하기: 복음 생활은 우리 가족을 축복한다
- 76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콧노래로 찬송가를 불러요
올리비아 코리 랜들

2014년 9월호 제51권, 제9호

리아호나 10989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예프 후흐트도르프

심이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러, 러셀 엠 넬슨, 앨런 에이치 욱스, 엠 러셀 벨라드, 리차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록,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엠 앤더슨

편집인: 크레이그 에이 카든

고문: 호세 알 발론소, 머빈 비 아놀드, 세인 엠 보웬, 스탠리 지 윌리스, 크리스토퍼 골든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티 워너

운영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트 캐넌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브리트리니 비에디, 데이비드 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드, 제니퍼 그레이스 펠런, 메튜 디 플리튼, 민디 라에 프리드만, 로리 풀러, 캐릿 에이치 가트, 라린 포터 건트, 마이클 알 모리스, 샬리 존스 오데커, 조슈아 제이 피커, 쟈 핀보로우, 리차드 엠 린니, 폴 벤덴버그, 머리아 왓슨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크눗슨

미술 책임자: 대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저넷 앤드류스, 페이 피 앤드러스, 멘디 엠 벤틀리, 시 킴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네이트 지네스, 클린 핑클러,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킵 엠 위어, 마크 더블로우 로빈슨, 브래드 테어, 케이 니콜 워크호스트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거 오온

제작 부장: 제인 엠 피터스

제작 팀: 케빈 시 벵크스, 콘니 바소프 브릿지, 줄리 바렛,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데니스 커비, 지니 제이 낄슨, 가일 타트 러퍼티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유크

배우 책임자: 스티븐 알 크리스텐슨

통권: 제51호, 제51권, 제9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4년 9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 및 번역 책임자: 백길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클특별시 중로 77번길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iahona.or.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이메일: koreado@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교회 잡지 구독 신청서(Excel)는 www.lds.or.kr "물품신청" 교회 잡지 구독"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이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ds.org에 온라인으로, 또는 liahona@ldschurch.org에

이메일로 보내시거나 다음 주소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m.2420,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리아호나 "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자)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4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email: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September 2014 Vol. 38 No. 9.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707.4.12.5).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이 실려 있다. 다음은 두 가지 아이디어이다.



“숨은 상처를 치유하라”, 14쪽: 이 기사 중 18쪽에 나오는 질문들을 살펴보고, 각 자녀와 개별적으로 외설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마련해 본다. 십 대들은 때로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으로서 외설물에 눈을 돌리기도 하므로,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여러분이 어떻게 본을 보였는지 되돌아보고, 자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돕는다. 공과를 하면서 가족 컴퓨터 규칙을 정하고 정결에 관한 연차 대화 말씀을 살펴보아도 좋다.(가령, 일레인 에스 돌튼, “덕으로의 회귀”,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78쪽) 유아 축복 때 입었던 옷이나 결혼식 사진 같은 가족 기념물을 활용하여 정결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축복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진정한 인기의 열 가지 비결”, 62쪽: 이 기사에 실린 원리들을 활용하여 자녀들에게 친구 사귀는 법에 관해 가르칠 수 있다. 기사에 담긴 사랑의 각 특성을 쓴 10장의 낱말 카드를 만들 수 있다.(또한 고린도전서 13장 참조) 자녀들에게 그런 각 특성이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물어본다. 그리고 여러분의 와드나 지부, 이웃 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사람을 도울 방안을 강구해 본다. 여러분은 곧바로 계획을 세워 봉사하고 싶을 것이다. 가족이 함께 자애를 간구하면서 시작한다.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가 실린 첫 장을 나타냅니다.

- 가족 역사, 22
- 가족, 41, 74
- 개종, 40
- 개척자, 26
- 결혼, 32
- 교육, 48, 50, 53
- 교회 역사, 26
- 구원 사업, 22
- 기도, 39, 61, 68
- 물문경, 22, 39

- 미디어, 14, 20
-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 4
- 선교 사업, 20, 22, 54, 56
- 성신, 38
- 성약, 42
- 성전 사업, 22
- 순종, 66, 74
- 신권, 32
- 신앙, 58, 61
- 여성들, 32, 42

- 연차 대화, 8, 67
- 예수 그리스도, 7
- 외설물, 14
- 이사야, 12
- 자립, 4
- 자애, 10, 46, 62
- 청소년, 14, 20
- 친구, 54, 61, 62
- 활동 촉진, 22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우리는 준비되었습니까?

전에 제가 살면서 봉사했던 지역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양계장이 있었는데, 주로 근처 와드의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일을 했습니다. 대체로 이 양계장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수천 개의 싱싱한 달걀과 수백 킬로그램의 손질된 닭고기를 감독의 창고에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도시 사람들이 자원봉사 농부로서 일하다 보니 때때로 손에 물집이 생길 뿐만 아니라 좌절감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양계장의 봄맞이 대청소를 위해 아론 신권 청남들을 한데 모았던 일이 기억납니다. 이 열정적이고 활기 넘치는 그룹은 양계장에 모여, 빠른 속도로 많은 잡초를 뽑아 다른 부스러기들과 함께 태웠습니다. 이글거리는 모닥불 옆에서 우리는 핫도그를 먹으며 일이 잘 끝난 것을 자축했습니다. 양계장은 말끔히 정돈되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끔찍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닥불과 소음 때문에 약하고 번덕스런 5,000 마리의 암탉들에게 갑자기 탈모가 생기고 산란이 멈춰 버린 것입니다. 그 후로 우리는 달걀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약간의 잡초는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참여했던 교회 회원 중 어느 누구도 그 경험을 잊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근면, 검소, 자립, 그리고 이웃과의 나눔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각 가정이 식량과 의복,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타

생활필수품까지 비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창고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회원들이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정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창고에 쌓아 둘 수 있는 것에는 충실한 교회 회원들의 시간과 재능, 기술과 열정, 헌납된 자원과 재정 수단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자원을 감독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활용합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검약하는 삶을 유지하고, 지나치거나 불필요한 빛을 피할 것을 모든 후기 성도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식량과 의복을 비축하며 빛 없이 살아가기만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경제적 생활에 불어닥치는 험한 풍랑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권고와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빛을 잔뜩 쌓아 둔 채, 식량도 없이 지냅니다.

몇 해 전에 제일회장단이 선포한 내용을 되풀이하고자 합니다.

“후기 성도들은 약간의 돈을 떼어 두고 역경에 대비하라는 권고를 수년 동안 받아 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안전과 복지에 해어릴 수 없는 보탬이 됩니다. 모든 가족에게는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들의 필요 사항을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세상의 어디에 살고 계시든지,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역경에 대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는 검소하게 지출하고, 구매할 때 스스로 자제하여 부채를 피할 것을 여러분께 촉구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빨리 부채를 상환하고, 이 속박에서 해방되십시오. 약간의 돈을 정기적으로 저축하여 재정 예비금을 점차적으로 모으십시오.”¹

인생의 비상 시기에 대비하여,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기술을 완전히 숙련했습니까? 미래를 위해 근검절약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비축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합니까?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응하고 있습니까? 가난하거나 어려운

사람에게 가진 것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할 때가 찾아왔다면, 준비의 시기는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

주
1. 제일회장단,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가족 재정(앰플릿, 2007년)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여러분이 방문하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고려하여, 그들이 취업, 재정, 식량 비축, 비상 사태 대비와 관련하여 더 잘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방안을 생각해 본다. 그들이 몬슨 회장의 권고를 따르도록 돕기 위해, 원예 기술이나 재정 관리 비법 등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재능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본다.

이 메시지를 청소년이나 어린이에게 가르칠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6쪽을 참조한다.



또 한 번 봉사하며

자이네 아라우주

어느 날, 봉사 활동을 마치고 우리 집회소 근처를 지나가는데 건물 청소를 하시는 자매님 두 분이 보였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생각도 하기 전에 말이 먼저 튀어 나왔다. 한 자매님이 씩긋 웃으시며 마침 잘 왔다고 말씀해 주셨다. 단둘이서만 청소를 하다 보니 지쳐 가던 참이었다는 것이다. 자매님은 누군가 도움이 되어 줄 사람을 보내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하셨다.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 아주 기뻐다. 나도 막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를 하고 오던 길이라 고단했지만,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더 봉사하기로 했다.

기쁘게 봉사하는 것은 계명이다.(교리와 성약 24:7 참조)
 늘 봉사하고자 소망할 때, 이웃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도록 도울 수 있다. 봉사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의미 있게 된다.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자녀 하나하나를 다 도와주신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봉사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다.

글쓴이는 브라질 리우그랑데두노르테에 산다.

어린이

여러분은 준비되었나요?

몬스 회장님은 우리 각자가 어려울 때에 대비하고, 이웃이 어려울 때에는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참/거짓 문제를 풀면서 자신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나는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쉽게 찾는다. 참 거짓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릴 수 있다. 참 거짓

나는 누군가를 위해 쓸 수 있는 재능이 하나도 없다. 참 거짓

나중을 위해 돈을 저축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참 거짓

행복해지려면 새 장난감과 옷이 있어야 한다. 참 거짓

정답: 참, 참, 거짓, 참, 거짓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누구와 나눌지 알기 위해 간구한다. 여러분은 구주의 생애와 사명을 이해함으로써 어떻게 그분을 믿는 신앙을 키우고, 방문 교육을 통해 여러분이 돌보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 더 자세한 내용은 reliefsociety.lds.org에서 알아본다.



신앙, 가족, 구제

상호부조회 역사에서

제12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했던 일레인 엘 잭 자매는 말했다. “우리는 방문 교육을 통해 서로에게 손을 내밉니다. 말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손이 표현해 줄 때가 많습니다. 따뜻한 포옹 한 번으로 많은 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한 번 웃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나누는 순간들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곤경에 빠진 사람의 짐을 항상 들어 줄 수는 없지만 어려움을 잘 견디도록 힘을 북돋워 줄 수는 있습니다.”³

우리의 개척자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또한 “서로 사랑하고 함께 슬퍼하며 영적인 힘을 얻었다. …… 질병과 죽음의 고통에 시달렸지만 신앙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했고 서로 위로했다. 헬렌 마 휘트니는 이렇게 기록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흘러들었다. 그리하여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간악한 자의 노력은 헛된 듯이 보였다. 때때로 날아드는 대적의 잔인한 불화살마저 그 날카로운 축을 잃은 듯했다.’”⁴ ■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 보혜사

다음은 구주의 사명에 관한 여러 측면을 소개하는 방문 교육 메시지 연재 기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한복음 14:18) 그분은 우리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이사야 61:3)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속죄를 치르셨기에,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이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 보좌인 린다 에스 리브즈 자매는 “구주께서 ……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까지도 짊어지셨으므로 우리의 고통이 어떤지 아시고 어떻게 위로하실지 아십니다.”라고 말씀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리라는 것을 알면 화평과 영감이 찾아와 그분의 모범에 따라 이웃에게 봉사하려는 마음이 한층 커진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의 복음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올바르게 걷고 계명을 지키는 한 우리를 지탱하게 하고 위로해 주며 우리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는 없습니다.”²

성구에서

요한복음 14:18, 23; 앨마서 7:11~13; 교리와 성약 101:14~16

주

1. 린다 에스 리브즈, “주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120쪽.
2.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기뻐하라”,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92쪽.
3. 일레인 엘 잭,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 2011년, 119쪽.
4. *내 왕국에 속한 딸들*, 34쪽.

생각해 볼 점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가?

2014년 4월 연차 대회 노트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2014년 4월 연차 대회를 다시 읽으면서 다음 내용(그리고 향후 리아호나에 실릴 연차 대회 노트)을 활용하여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 교회 여러 지도자들이 전한 최근 가르침을 공부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리 살펴보기

속죄와 성약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킨다는 것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묶고 그분이 메신 명에를 함께 멘다는 뜻입니다. 본질적으로,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짐을 끌자고 손짓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의 능력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필멸의 여정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짐을 끌 때, 진정 그분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벼울 것입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받으려면, 고결하게 맺고 지킨 성약, 그리고 합당한 신권 권세로 집행된 의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권 의식을 통해서 속죄의 축복을 포함한 경건의 능력이 육체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교리와 성약 84:20~21 참조)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쉽게 그들의 짐을 지게 하시매”,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88쪽.

lds.org/go/testimony914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간증을 강화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lds.org/go/covenants914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약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약속

감사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감사는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초월합니다. 실망과 낙담, 절망을 뛰어넘습니다. 광광 얼어붙은 겨울의 대지에서든 따사로운 여름처럼 아름답게 꽃을 피워 냅니다. ……

…… 고통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속죄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쓰디쓴 슬픔의 추위 속에서 하늘의 다정하고 따뜻한 포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75쪽.

lds.org/go/study914에서 연차 대회 말씀을 더욱 깊이 연구할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해답

연차 대회에서 선지자와 사도들은 교회 회원들이 갖고 있을 만한 질문에 영감 어린 대답을 해 줍니다. 2014년 5월호 또는 conference.lds.org에서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십시오.

- 어떻게 하면 정중하면서도 이해심 있는 태도로 나의 믿음을 수호할 수 있을까요? lds.org/go/holland914에서 답을 찾아보거나, 6쪽에 나오는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의 말씀 “제자 됨의 대가와 축복”을 읽어 보십시오.
- 우리가 효과적으로 진리를 전하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lds.org/go/scott914에서 답을 찾아보거나, 32쪽에 나오는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의 말씀 “본을 보였노라”를 읽어 보십시오.

우리 가족 성약의 길 점검표 만들기

“아내 리사와 저에게 이 간단한 방법은 성약의 길을 걷고 있는 각 가족 [구성원]에게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게리 이 스티븐슨 감독, 감리 감독, “여러분에게 주어진 4분”, 86쪽.

1. 종이 한 장을 두 칸으로 나누어 한쪽에는 “이름”, 다른 쪽에는 “다음 단계 또는 필요한 의식을 받기 위한 계획”이라고 적습니다.
2. 침례, 신권 성임, 성전 엔다우먼트, 인봉 의식을 받아야 하는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각각 적습니다.
3. 가족과 함께 토론 또는 가정의 밤 공과를 하거나 가족이 필수적인 의식을 받는 데 필요한 다른 준비를 진행합니다.

외설물로부터의 보호



“필터[는] …… 유용한 도구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최고의 필터이자 궁극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유일한 것은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구주의 속죄 희생에 대한 깊고 변하지 않는 간증에서 비롯되는 우리 내면의 필터입니다. ……

……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직접

경험을 통해, 그리고 제 남편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기에, 매일 하는 경전 공부와 기도, 그리고 매주 하는 가정의 밤의 축복에 대해 간증을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실천할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날려 버릴 수 있으며, 우리 삶은 인도받고, 가정은 더 보호될 것입니다.”

린다 에스 리브즈,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외설물로부터의 보호-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춘 가정”,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16~17쪽.

lds.org/go/overcome914에서 개인과 가족이 외설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conference.lds.org에서 연차 대회 말씀을 열람, 시청, 청취,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사랑과 친절로 대하겠다고 결심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한 율법사가 예수께 어느 계명이 가장
큰지 여쭙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구약이나 모세 율법, 십계명 등 많은
계명 가운데 하나를 언급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는 대신에,
모든 계명을 아우르는 다음 두 계명을
알려 주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37~39).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지난
연차 대회에서 한 계명을 지키면 다른
계명을 더 쉽게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가르쳤습니다. “필멸의 여정에서 우리의
동료 여행자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이기에 서로 형제
자매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기가 더
쉬워집니다.”(“사랑—복음의 정수”,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91쪽)

자애, 곧 타인을 향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키우면, 관계가 돈독해지고,
더 기꺼이 봉사하게 되며, 영생을 얻기에
합당해질 수 있습니다.(모로나이서 10:21
참조) 자애는 우리가 간구하고 추구할
수 있는 영적인 은사입니다. 자애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
모두에게 내려 주[시는]”(모로나이서
7:48) 것입니다. 자애는 사도 바울이 말한
“가장 좋은 길”(고린도전서 12:31)이며,
친절, 인내, 겸손, 유순함, 소망 가득한
마음과 관대함을 포함합니다.(고린도전서
13장 참조)

삶은 자애를 발전시키는 완벽한
연구실입니다. 우리는 황금률이라 불리는
구주의 가르침을 우리 행동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태복음 7:12).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며,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친절히 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

사랑으로 대화를 나누십시오



“남성과 여성이 신념과
행동 면에서 큰 차이가
있고, 서로 다른 동기로
인해 그들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서로에 대한 존중심을 함양하는
일은 오늘날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
흔쾌히 상대방의 눈으로 보려 한다면,
‘더러운 말’은 ‘은혜를 끼치[는]’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 그것이 문제를
고치거나 해결해 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가능성은 은혜가 끼칠 때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성신의 은사를 함양하여 이를
통해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염려하는
동정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면,
애정에 찬 언어로 ‘은혜를 끼[칠]’ 수
있음을 간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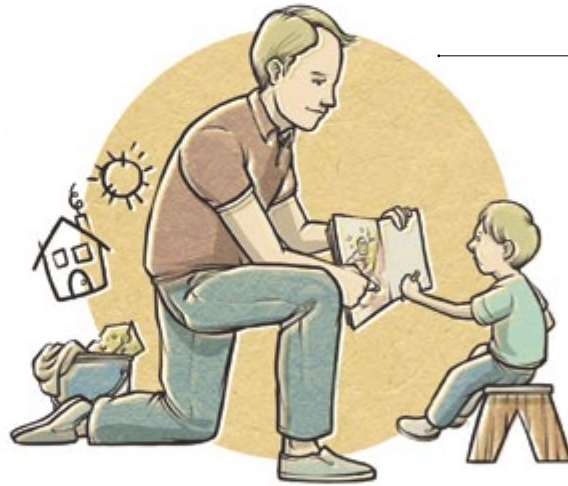
칠십인 정원회의 더블유 크레이그 즈워크 장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43쪽.

다음에 나오는 몬슨 회장의 가르침을 읽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보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가정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에는 언제나 용서가 따릅니다. …… 비난은 상처를 만듭니다. 오직 용서만이 [상처를] 치유합니다.”



“질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 꾸짖은 후에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121:43 참조)



“웃고, 손을 흔들고, 친절한 말을 하고, 칭찬하는 등 사랑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할 방법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보이고, 인내하며 친절하게 어떤 원리를 가르치고, 아픈 사람이나 병으로 외출하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문안을 가는 것처럼 더 적극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사랑—복음의 정수”,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91~94쪽에서 발췌.

이사야

“이사야는 어느 모로 보나 메시아를 예언한 구약의 선지자이며, 그만큼 그 경전에서 가장 통찰력 있는 예언적 목소리가 되고 있습니다.”¹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저는 아모스의 아들로, 제 이름에는 “주님은 구원이시다”²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는 주전 740년부터 701년까지, 40년간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봉사했습니다. 저는 왕이 네 차례에 걸쳐 바뀐 세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남겼고, 히스기야 왕의 수석 고문으로서 커다란 종교적 영향을 미쳤습니다.³

저는 당대와 동시대 사람들에 관한 사건뿐 아니라 온 인류에 영향을 미칠 미래의 일들에 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구주의 탄생을 대해서는 이렇게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⁴ 저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실 것임일]”⁵ 선언했습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 뒤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⁶라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제가 사용한 상징과 시적인 표현 때문에, 제 가르침을 이해하거나 따를 준비가 되지 않은 이들은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성신의 도움을 받고 부지런히 연구하는 사람들은 저의 예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⁷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거룩한 땅에서 흩어지기 시작하기 전에 그들을 가르친 주요 선지자 중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

주

1. Jeffrey R. Holland, *Christ and the New Covenant: The Messianic Message of the Book of Mormon* (1997), 75.
2. Bible Dictionary, “Isaiah.”
3. 경전 안내서, “이사야”, scriptures.lds.org 참조.
4. 이사야 7:14.
5. 이사야 61:1; 또한 누가복음 4:16~21 참조.

6. 이사야 24:23.
7. 구약전서 학생 교재: 열왕기상-말라기(교회 교육 기구 편, 2003), 131~135쪽 참조.
8. 구약전서 학생 교재, 131쪽 참조.
9. 보이드 케이 패커, “내 영혼의 일”, 성도의 빛, 1986년 7월, 64쪽 참조.
10. 구약전서 학생 교재, 131쪽 참조.
11. 조셉 스미스—역사 1:40.

선지자 중의 선지자

이사야는 경전에 나오는 모든 고대 선지자 중 가장 자주 인용되는 선지자이다.

- 물문경에서는 이사야서의 32퍼센트가 인용되었으며, 3퍼센트에 달하는 부연 내용도 있다.⁸
- 구주께서는 신약전서에서 적어도 7회에 걸쳐 이사야를 인용하셨으며, 사도들은 이사야를 최소한 40차례 인용했다.⁹
- 교리와 성약에는 이사야의 글귀가 사용된 부분이 최소 100군데에 이르며¹⁰ 113편과 133편에는 이사야 예언에 대한 해석과 부연 내용이 일부 담겨 있다.
- 1823년 9월 21일,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 이사야 11장을 인용하며 “이것은 바야흐로 성취되려 하고 있다고 하였다.”¹¹



교회 자료— 종이책으로? 아니면 디지털로?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면서 손가락을 풀고 있다. 참 많은 것들을 해낸 손이다. 새는 수도꼭지를 고치거나 식탁을 만들기도 했고, 무도장을 휘저으며 리듬과 스타일에 맞추어 아내를 이끌기도 했다.

그는 문득, 최근에 산 스마트폰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참 많은 일을 해낸 손이지만, 이 엄지손가락으로 사체 할 수 있을까?

스마트폰 옆에 그의 주일학교 교재와 손때 묻은 경전이 놓여 있다. 이것들을 얼마나 사랑했던가! 손에 느껴지는 종이의 감촉, 여기저기 손으로 써넣은 자잘한 기록들, 그리고 그 목직한 무게마저 사랑스럽다.

그렇지만 그는 표준 경전과 더 많은 자료를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다고 가르치신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의 말씀을 기억했다.¹ 그는 빛바랜 경전을 쓰다듬으며, 일주일 내내 이것들을 들고 다닐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게다가 며칠 전 금요일 밤에 함께 나선 산책길에서 손자 녀석은 스마트폰을 꺼내 최근 연차 대회 말씀을 보여 주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을 들려주는 것이었다.

그는 일과 중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할 수는 없었지만, 5분이나 10분씩은 쉽게 짤 수 있었다. 그는 교회에서 디지털 자료로 제공하는 모든 것을



활용해 보고 싶었다.

현관에서 푹푹 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준비 되셨어요?”

그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다. 그의 엄지는 자녀와 손주들의 손가락처럼 날렵하지도 않고 또 그럴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가 대답한다. “물론이지, 할아버지한테 어서 가르쳐 다오!”

몇 주 후, 그는 손자가 가르쳐 준 것 이상으로, 디지털 세상에 대한 다음과 같은 더 많은 특성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 다목적이다. “동영상 및 음원 파일과 같이 인쇄본으로는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디지털로는 한 곳에 모든 것을 보유할 수 있다. 언제든지 기록을 남기고 보관할 수

있다.”

- 광범위하다. “디지털 세상은 마치 거대한 도서관 같다. 교회의 출판물을 들고 다니며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다.”
- 검색이 가능하다. “검색 기능으로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 공유할 수 있다.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공유할 수 있다. 복음을 나누는 손쉬운 방법이다.”
- 효율적이다. “배송되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물건을 보관할 장소를 찾을 필요도 없다.”
- 저렴하다. “교회의 디지털 자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자료를 선택하면 교회는 인쇄, 발송, 재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거의 모든 교회의 출판물을 LDS.org와 모바일 앱인 복음 자료실에서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 자료를 사용한다고 해서 인쇄 자료를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때와 장소에 따라 두 가지 자료를 다 적절히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가올 해의 교과 과정을 준비하면서, 어떤 자료를 디지털로 사용하면 효과적인지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무엇보다도, 디지털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주변에는 언제나 이용 방법을 가르쳐 줄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

주 1. 리차드 지 스코트, “가정의 평화를 위해”,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30쪽.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십 대가 18세 이전에
외설물을 접하게 된다.
이에 부모들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숨은



상처를 치유하라

제니퍼 그레이스 팔런
교회 잡지

힐 라맨은 쿠메나이 성을 지키기 위한 대전투에서 적에 맞서 “가장 필사적으로 싸웠[던]”(엘마서 57:19) 2,060명의 젊은 용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상처를 입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그들 중 죽은 자가 한 명도 없었[다.]”(엘마서 57:25) 그 십 대 병사 중 다수는 심각한 부상으로 피를 흘려 기진하게 되었다.

이 젊은 전사들은 부모들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전투에서 싸웠다. 자신들이 속한 사회가 공격받았기 때문이었다. 오늘날 이와 흡사한 원인에서 생겨난 비슷한 재앙의 전쟁이 십 대들 사이에 번지고 있다. 암몬 백성처럼 이 시대의 부모들 역시 자녀에게 닥친 영적 싸움을 대신 싸워 줄 수 없다. 하지만 부모들은 이 전쟁이 입히는 영적인 상처를 인식하고, 생존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자원으로 자녀들을 무장시키는 법을 배울 수 있다.

현실을 직시하라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이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외설물을 접하는 십 대 비율이 거의 100퍼센트에 달한다고 한다. 대부분은 숙제를 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외설물에 노출된다.¹ 2008년 기준으로, 약 90퍼센트의 십 대 남성과 약 33퍼센트에 가까운 십 대 여성이 외설물을 이용한다고 보고되었다.² 외설물 노출과 중독이 일어나는 평균 나이는 남녀가 똑같이 11세이다. 우리는 복음에 힘입어 이와 같은 비율이 떨어지기를 바라지만, 연구에 따르면 후기 성도들도 역시 “성 중독의 만연과 창궐에 관한 한 다르지 않다”³고 한다. 안타깝게도, 이제는, 우리 자녀가 외설물에 노출될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노출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맞설 것인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사실상 우리 청소년 다수가 이 전쟁에서 부상을 입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그들의 멸망을



가족 컴퓨터 규칙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같은 인터넷 안전 수칙에만 얽매어서는 안 된다.



뜻하지는 않는다.

자녀를 보호하려 애쓰다 보면,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같은 인터넷 안전 수칙에만 너무 몰입하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브리검 영 대학교의 가족생활학과(School of Family Life: 가정, 결혼, 가족 관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브리검 영 대학교의 한 학과-웁긴이) 교수인 마크 버틀러는 우리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기술적 해결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방패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씌우는 방패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영적 방패는 가정에서 형성되어 다듬어진다."⁴ 인터넷 방화벽이나 가족 컴퓨터 규칙도 중요하고 유용하다. 하지만 외설물 중독은 때로 가정을 떠나 인터넷 보안이 허술한 공공 도서관이나 친구 집, 와이파이 신호를 공유하는 장소에서 심화될 수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세상은 더 강한 규제를 더 많이 법령화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도덕한 행위를 그만두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예견하고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법률은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 결국 사회가 타락하는 현상과 근본 원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개개인이 내적인 도덕 나침반을 갖추는 것뿐입니다."⁵ 결국 정결한 삶을 향한 소망이야말로 우리가 자녀에게 입혀 줄 수 있는 최선의 갑옷이다.

중독의 징후

육신을 잘못 사용하면 영혼도 부상을 입게 마련인데, 결코 예외는 없다. 아울러 그와 같은 부상은 반드시 영적인 상처를 남기게 된다.

기민한 부모들은 다음과 같은 징후에 유의함으로써 외설물 중독을 감지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이와 같은 징후가 반드시 외설물 중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십 대 자녀가 이 같은 행동 몇 가지를 보인다면, 약물 남용, 외설물 중독, 따돌림 등 더 심각한 문제에 노출되었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 원인이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은 이와 같은 징후를 바탕으로 자녀의 문제에 개입하여 따뜻한 대화를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위축된 자존감

외설물과 싸우는 청소년은 종종 자존감을 씹먹는 수치심으로 힘들어한다. 자존감 상실 징후의 예로는 성적 하락, 갖가지 활동 동기 상실, 좋은 건강 습관이나 수면 리듬의 규칙성 감소 등이 있다.

사회적인 침잠

외설물 중독은 비밀리에 깊어진다. 우리는 십 대 자녀가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나 친구들과의 활동에서 더욱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은 가장 보편적인 외설물 문제 신호이다. 문을 잠근 채 지나치게 오랜 시간을 방에서 보내며 사람들과 담을 쌓고 지내는 십 대들은 단순히 수줍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십 대들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해도 사람들과

발맞춰 일하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한다. 중독이 깊어지면 고립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며, 자신의 공간이 침범당할 때 자주 화를 내기도 한다. 외설물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와 타인의 고결성에 대해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본다. 또한 더 고결한 사람이라 생각되는 이들에게서 멀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이 무가치하고 수치스러우며 위선적인 사람이라 느끼기 때문이다.

우울증

우울증은 양날의 칼처럼 중독의 원인일 수도 있고, 동시에 중독이 일으키는 증상일 수도 있다. 지속적인 절망감의 표현이나 소극적인 태도, 무력감을 털어놓는 것 등은 모두 우울증의 징후일 수 있다. 자살에 관한 농담을 하는 십대들은 우울증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걱정 수준보다 많거나 적게 먹는 것, 지나친 수면이나 불면증, 극도의 육체적 피로감 등 말하자면 극단으로 치우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모두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다.

외설물에 관여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로는 잦아진 분노, 부정직, 교만, 영적 환경에 놓일 때 보이는 불안감이나 지루함 등이 있다.

청소년들과 자주 대화하며 복음에 대한 우리의 간증과 헌신하는 마음을 나타내야 한다.



외설물 중독의 모든 징후를 다 열거할 수는 없다. 부모들은 자녀의 정서적, 영적 건강과 성에 관한 솔직한 대화를 통해 그들이 외설물에 맞서 적절하게 무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제 아이는 중독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셨기에 “어떠한 중독의 악순환에 빠지더라도 항상 희망은 있습니다.”⁶

버틀러 교수는 근본적으로 “모든 중독은 부적응적 대응 전략”이라고 말한다. 죄책감, 수치심, 슬픔, 고통 등을 감당하는 법을 깨우치지 못한 청소년들은 종종 부정적인 감정을 마비시키기 위해 중독 행위로 들어서는 것이다. 스트레스나 지루함, 외로움과 같이 덜 심각한

정서 역시 그에 대처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중독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부모는 모범을 보여 자녀가 건전한 대응 전략을 개발하도록 도울 수 있다. 다음 질문들이 여러분의 대응 전략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스트레스나 피로, 절망에 빠질 때 스스로를 고립시키는가?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오락에 기대지는 않는가? 가장 건강한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지하는 것임을 여러분은 행동으로 보여 주고 있는가?

아이들은 슬픔, 죄책감, 고통과 같은 영적 상처의 신호를 인식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하며,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배움의 경험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정서적 고통은 나쁜 것이 아니다. 엘마 이세는 자기 최악의 고통이 “격심하고” 또한 “쓰디쓰디”(엘마서 36:21)고 표현했다. 베드로는 구주를 부인하고 나서 “심히 통곡”(누가복음 22:62)했다. 그리고 지에즈롬은 “자기의 간악함으로”(엘마서 15:3) 괴로워했다. 고통을, 피해야 하는 끔찍한 감정이라기보다는 경이로운 성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교사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도록 자녀를 도울 수 있다. 엘마와

적절한 질문

외 설물 문제로 힘들어하는 십 대 대부분은 부모에게 말하기에 앞서 감독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감독은 그런 것에 관해 직설적으로 질문한다. 둘째, 청소년들은 상처받기 쉬운 문제와 관련하여 부모와 대화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한다. 브리검 영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브로스 카펜터는 부모가 외설물에 관한 직설적 질문들을 하기에 앞서 세심한 대화 능력을 먼저 개발할 것을 권장한다. 그렇게 하면 도덕성과 표준에 관한 일반적인 주제로 나누는 대화에 십 대 자녀가 자연스럽게 함께하도록 할 수 있다.



- 네 친구들은 성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니?
- 교회의 도덕 표준에 대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 외설물 문제로 힘들어한 적이 있니? 그렇다면 나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니?
- 너는 어떤 상황에서 가장 상처받기 쉽다고 생각하니?
- 너는 어디서 주로 외설물을 보게 되니?
- 제일 힘들게 하는 친구들은 누구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베드로, 지에즈롬 모두 자기 죄의 고통을 선용하여 회개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았고, 그들은 헌신적인 복음의 사절이 되었다. 여러분 역시 모범과 인도로써 자녀가 중독을 이기는 회개의 가치를 깨닫도록 도울 수 있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회개로 이끄는 죄에 대한 슬픔과, 절망으로 이끄는 슬픔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고린도후서 7:10; 강조체 추가]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변화와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끌어내리고, 희망을 사라지게 하고, 유혹이 더 닥치면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

참된 회개는 고문이나 고통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가슴에서 우러난

카펜터 교수는 일련의 질문 목록을 따르기보다는 관계를 다지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말하면서도, 십 대 자녀와 정기 접견을 할 때 왼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 보라고 제안한다.

흔히 십 대들은 이런 대화를 굉장히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부모들이 마음을 열고, 판단을 자제하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필요한 징계를 가하는 부모에게는 선뜻 고백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¹ ■

주
1. 브로스 카펜터, 저자와의 인터뷰 중에서, 2013년 9월 12일.



우리 청소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면서 영적 상처에서 치유될 수 있다.

후회와 불순종에 대한 진실한 뉘우침은 회개라는 성스러운 과정에서 종종 고통스러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죄책감이 자기혐오로 이어지거나 재기를 방해할 때는 회개를 촉진하기보다는 도리어 방해가 됩니다.⁷

정결한 삶에 대한 이상과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자신의 영적 상처를 견뎌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상은 날마다 진지하게 경전을 연구하며 열심히 기도할 때 형성된다.⁸ 버틀러 교수는 부모들에게 이렇게 권고한다. “여러분이 보이는 모범의 힘으로, 정결한 삶의 기쁨과 평화, 행복에 대한 강력한 이상을 만드십시오. 정결한 삶에 대한 소망과 그 실현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지만, 소망이 바로 새싹을 틈을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정결하고자 하는 소망이 자라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버틀러 교수는 “육에 속한 사람은 상당히 끈질긴 존재라서 쫓아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때가 많다.”고 말했다. 중독이라는 단어가 선택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극도로 해로운 습관들은 그 극복을 위해

(교회의 중독 회복 프로그램처럼) 꾸준하고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할 때가 있다.

앞날의 희망

힐라멘의 용사들처럼, 청소년들은 악과 마주했을 때 종종 “큰 용기”를 보여 준다.(엘마서 56:45) 물론경의 전사들이 부모의 신앙에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에 대한 우리의 간증과 헌신을 보여 주어 청소년들이 “우리의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이] 이를 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나이다”(엘마서 56:48)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 싸움을 싸워 줄 것임이라.”(교리와 성약 105:14)라고 약속하셨다. 우리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서 비롯한 신앙을 행사할 때, 그들은 “능하게 [되어], 참으로 구원의 능력에 이르게”(니파이전서 1:20) 될 것이다. ■

overcomingpornography.org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더 찾아볼 수 있다.(현재 영어로만 이용 가능함)

주

- John L. Hart, “In Your Family? Undetected, Pornography Invades Homes, Ruins Lives,” *Church News*, Mar. 3, 2007; 참조.
- Jason S. Carroll and others, “Generation XXX: Pornography Acceptance and Use among Emerging Adul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3, no. 1 (2008): 6–30 참조.
- John L. Hart and Sarah Jane Weaver, “Defending the Home against Pornography,” *Church News*, Apr. 21, 2007, ldschurchnews.com.
- 마크 버틀러, 저자와의 인터뷰 중에서, 2013년 8월 2일; 또한 Mark H. Butler, *Spiritual Exodus: A Latter-day Saint Guide to Recovery from Behavioral Addiction*; 보이드 케이 패커, “신앙의 방패”, 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7쪽 참조.
-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도덕적 수양”,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106쪽.
- 엠 러셀 벨라드, “오 악한 자의 저 간교한 계획이여”,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10쪽.
-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이제는 할 수 있어요!”,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56쪽.
- 엠 러셀 벨라드, “오 악한 자의 저 간교한 계획이여”, 110쪽.

유익한 활동으로 청소년들을 강화하는 시대

마이크 매드슨
신권부

부 모 또는 청소년 지도자로서 여러분은 자녀, 그리고 와드나 지부 청소년들을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세상의 표준이 복음 표준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시대에 성장기를 보내고 있다. 그들은 복음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 하지만 다행히도 청소년들은 다른 십 대들과 함께 뜻깊은 활동에 참여하며 힘을 얻을 수 있다.

활동으로 청소년들을 강화하고 구조할 수 있다

성공적인 활동은 청소년에게 복음을

“이건 정말 관철은 도구이죠. 골별반 회장 부름을 수행하는 데 늘 이 사이트가 도움이 됩니다.”

—미케일러 에이치, 미국 텍사스

“이 사이트는 우리 활동의 목적을 확실하게 해 주고 청소년들의 간증이 생겨나는 데 큰 힘이 되는, 훌륭한 아이디어의 원천이자 실행 도구가 될 거예요.”

—조슈아 지, 캐나다 매니토바

“내용이 아주 좋아요. 지도자들이 영감을 받아서 청소년과 지역 지도자들을 배려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 사이트를 살펴보면서 영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빅토르 알, 멕시코

청소년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까? lds.org/youth/activities에 나와 있는 160여 가지 아이디어를 찾아보세요.



즐거움 5km

청소년들과 지역 사회를 위한 5km 마라톤 또는 도보 대회를 개최한다.



무도회 예절

적절한 무도회 예절에 대해 토론하고 시범을 보인다.



봉사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데 활용한다.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건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다른 청년 청년과 발맞춰 활동하는 가운데 장래에 자신이 맡게 될 역할을 준비하고, 재능과 취미를 개발하며, 지도력 기술을 배우고, 우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 사회의 이웃을 위해 의미 있는 봉사를



재능 발표

와드 또는 청소년 재능 발표를 계획한다.



선교 전시회

지역 집회소에서 선교 전시회나 문화 행사, 또는 다른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홍보한다.

해 볼 기회를 얻는다. 활동은 여러분이 청소년과 긍정적인 멘토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저활동 회원과 비회원 또한 스스로없는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 활동과 재미를 즐길 수 있다. “활동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구조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합니다.” 본부 청남 회장인 데이비드 엘 벡은 말한다. “많은 청소년이 처음에 성찬식이나 선교사 토론 초대에는 선뜻 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재미난 활동에는 기꺼이 함께할 것입니다. 수많은 개종자들 역시 친구가 초대해 준 청소년 활동을 통해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활동의 주요 요건 중 하나는 청소년의 참여이다. 여러분의 지도 아래 청소년들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청소년의 관심과 목표, 소망과 문제에 관해 그들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정원회 또는 반 회장단이 와드나 지부 청소년의 필요 사항을 고려하여 주도적으로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면, 청소년들은 더욱 관심을 기울이며 참여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활동에서 더 훌륭한 경험을 하게 된다.

다양한 활동

청소년들이 계획을 세울 때, 영감이 될 160여 가지 활동 아이디어를 lds.org/youth/activities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사이트는 청소년

및 성인 지도자들이 직접 낸 아이디어를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계획 및 의사소통 도구와 청남 청년의 필요 사항을 더욱 잘 인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려 준다. 뿐만 아니라 사이트에 여러분의 활동 아이디어도 제안할 수 있다.

사이트에서 제안하는 활동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 복음 나누기, 신체 건강 증진, 음악 미술 관련 활동, 장래 역할 준비,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 수행 등이 있다. 청소년들은 성장해 나가며 더 많은 책임을 받게 될 것이기에 승영으로 가는 길에서 최상의 채비를 갖추게 해 줄 폭넓은 경험과 능력이 필요하다. 칠십인 정원회의 폴 비 파이퍼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주실 일에 대비하여 우리 청소년들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다양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웹사이트의 다양한 활동 범주는 우리가 청소년에게 응당 제공해야 하는 기회들을 더욱더 강화해 줄 것입니다.”

사이트의 활동들은 일요일 공과나 ‘하나님에 대한 의무’ 혹은 ‘개인 발전 기록부’에서 배우는 원리와 연결되어 있어 청소년의 복음 학습을 강화해 준다.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모든 청소년들을 초대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과 지도자, 그리고 가족이 함께 일할 때, 자라나는 세대는 지상에서 주님의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더욱 잘 준비될 것이다. ■







구원 사업: 그때도 지금도

구원 사업의 다섯 가지 사명은 이 경륜의 시대에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몰몬경 시대에 가르쳐지고 실행되었습니다.

후 기에 대해, 그리고 세상에 넘치게 될 회복된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며, 니파이는 사람들이 “그들의 구속주와 그의 교리의 요점들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되어, 그들이 어떻게 그에게 나아와 구원받아야 할지 알 수 있게 되리이다.”(니파이전서 15:14; 또한 모세서 7:62 참조)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늘날 니파이의 예언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 교회는 사람들이 구속주께 나아와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온 세상의 남녀가 구주의 교리를 배우고 그것을 토대로 그들의 삶을 세우도록 돕습니다.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은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주의 포도원에서 일하도록’(교성 138:56) 보내졌다. 이 구원 사업에는 회원 선교 사업과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저활동 회원의 활동 촉진,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 복음 교육이 포함된다.”¹

몰몬경은 고대의 교회 회원들 역시 “선교 사업,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저활동 회원들의 활동 촉진,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강조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와 같은 회원의 필수 책임들이 여러 경륜의 시대에 걸쳐 항상 존재해 왔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며, 당신의 자녀들이 언제 어느 곳에 살든 그들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 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선교 사업

몰몬경에서는 선교 사업의 기초가 되는 교리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니파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아들을 따르되, 마음의 뜻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나 거짓을 행함이 없이, 진정한 의도로써 너희의 죄를 회개하며, 너희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려 함을 침례로써-참으로 그의 말씀대로, 너희 주 곧 너희 구주를 좇아 물에 들어감으로써 아버지께 증거할진대, 보라, 그리할진대 너희가 성신을 받을 것이라. 참으로 그리할진대 불과 성신의 침례가 임하니니”(니파이후서 31:13; 또한 제3니파이 11:31~40; 27:13~22 참조)

그러므로 몰몬경에 감동적인 선교 사업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모사이야의 아들들은 니파이인 왕의 자리를 거절하고, 그 대신 니파이인의 적인 레이맨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니파이 땅으로 갔습니다. 그들의 선교 사업은 약 14년간 지속되었고 수천 명이 개종하여 교회에 들어왔습니다.(모사이야서 28장; 앨마서 17~27장)

몰몬경에 나오는 선교 사업의 모범을 따라 오늘날 교회는 교회 역사상 유례 없는 선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니파이는 새로운 회원들이 복음에 따라 충실히 생활하여

영생을 얻도록 복돋우는 일에 관해 썼습니다.

“너희가 이 험착하고 좁은 길에 들어선 후에는 내가 묻고자 하노니, 만사가 다 행하여진 것이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이는 너희가 구원하기에 능하신 자의 공덕에 온전히 의지하며, 그를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것임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느니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힘써 앞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흠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보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느니라.”(니파이후서 31:19~20)

몰몬경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은 새로운 회원들이 험착하고 좁은 길에 남도록 돕고자 구체적으로 단계를 밟아 일했습니다. 우리 시대를 보고 우리가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리라는 것을 알았던(몰몬서 8:35 참조) 모로나이는 새로운 회원들이 계속해서 성약에 따라 충실하게 생활하도록 돕기 위한 몇 가지 실천 사항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또 그들이 받아들여져 침례를 받고 성신의 권능으로 역사함을 받아 정결하게 된 후에는, 그리스도의 교회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았고, 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들을 바른 길에 있도록 지키며 그들로 하여금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며 그들의 신앙의 창시자이시요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의 공덕만을 의지하도록 하려 하여 그들의 이름을 취하였느니라.

또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의 복리에 관하여 서로 말하기 위하여 자주 함께 모였느니라.”(모로나이서 6:4~5)

현대의 교회도 워드 평의회, 신권 정원회 및 기타 조직에서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을 돕기 위해 몰몬경에 나오는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²

저활동 회원들의 활동 촉진

엘마는 성역 후반에, 스스로를 조람인이라 칭하며 배도한 사람들의 영적 복리를 크게 걱정했습니다. 몰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다시 상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는 자기 백성 중의 죄악에 대하여 알게 됨이 엘마에게는 큰 슬픔의 까닭이 되었음이라. 그러므로 그의 마음은 조람인들이 니파이인들에게서 나누어진 일로 인하여 심히 슬펐더라.”(엘마서 31:1~2)

엘마는 조람인들을 되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엘마는 충실한 동반자들을 선택하여 이 일에 임하는 동반자들과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해” 주고, 그들의 노고에 따르는 고난을 견딜 힘을 주며, “그리스도 안에서 [조람인]들을 다시 [아버지]께로 인도함에 있어 성공을 거두게 해 주시기를”(엘마서 31:32, 34)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동반자들에게 신권 축복을 주고서 함께 성역을 시작했습니다.(엘마서 31:36 참조)

부활하신 주님께서서는 풍요 땅 백성에게 친히 성역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을 택하시어 험착하고 좁은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이는 그러한 자에게 너희가 계속하여 성역을 베포어야 할 것임이니라. 이는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마음의 뜻을 다하여 내게로 오므로, 내가 그들을 낮게 하지 않을지, 그리하여 너희가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방편이 되지 않을 줄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제3니파이 18:32)

저활동 회원들의 마음에 다시금 신앙의 불꽃을 지피려는 현대 교회의 노력은 몰몬경에 기록된 구주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

레이맨인들에게서 떨어져 나온 뒤, 니파이인들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나 니파이는 성전을 지었나니, 내가 이를 솔로몬 성전의 방식을 따라 건축하였으되 다만 그것이 것처럼 많은 귀한 것들로 지어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러한 것들을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었음이라. 그리하여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지어질 수는 없었으나, 그 건축 방식은 솔로몬의 성전과 같았으며 그 솜씨가 심히 정교하였느니라.”(니파이후서 5:16)

몰몬경에는 야곱, 베냐민 왕, 엘마, 엠울레크 모두 성전에서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야곱서 1:17; 모사이야서 1:18; 엘마서 16:13 참조) 엘마서와 힐라맨서에는 백성들 사이에



구원 사업에서 우리의 역할

모 든 교회 회원은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고자]”(교리와 성약 138:56) 원가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 선교 사업,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저활동 회원들의 활동 촉진,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계획을 일지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가족이나 가정 복음 교사 또는 가정 방문 교사와 토론할 수 있습니다.

있었던 여러 성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앨마서 16:13; 힐라만서 3:9 참조)

부활 뒤에 구주께서는 살아남은 니파이인과 레이맨인들에게 나타나실 장소로 풍요 땅의 성전을 택하셨습니다.(제3니파이 11:1 참조) 주님은 또한 가족 역사 사업의 바탕이 되는 교리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후기에 출현할 엘리야에 관하여 말라기를 인용하시며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제3니파이 25:5~6)

몰몬경에는 가족의 역사를 보유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자주 언급됩니다. 리하이는 아들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 낫쇠판을 얻어 오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기록과 [그의] 조상의 족보”(니파이전서 3:3)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터서에는 통치권을 계승받는 왕들과 필요에 따라 그들의 형제와 자녀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 폭넓은 가족 역사 기록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 세워진 교회의 성전과 가족 역사 사업을 위한 노력은 몰몬경의 가르침과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복음 교육

몰몬경에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니파이의 말은 그 충실한 가르침의 정신과 신성한 목적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또 우리는 우리의 예언에 따라 기록하노니,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니파이후서 25:26)

몰몬경의 위대한 가르침 다수가 자녀에게 주는 부모의 가르침에서 온 것입니다. 야곱에게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음”을 가르친 니파이(니파이후서 2:11), 코리엔톤에게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니었느니라.”라고 가르치는 앨마(앨마서 41:10), 그리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는 가르침을 그들의 어머니에게서 받았[던]” 젊은 용사들을(앨마서 56:47)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 사업의 다섯 가지 사명은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세상에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몰몬경 시대에 가르쳐지고 실행되었으며, 항상 “[그리스도] 교리의 요점”(니파이전서 15:14)에 속해 있었습니다. ■

주

1.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 (2010), 5.0.
2. 지침서 제2권, 4장과 5장 참조.



한국의 후기 성도

혼돈과 시련의 시기에 비친 복음의 빛

한국 교회는 초기 개척자들의 헌신적인 신앙으로 오늘날 구만여 명의 교회로 성장하였다.

서희철
교회 역사 고문, 한국

한 국에서 선교 사업이 시작된 것은 한국 전쟁 중인 1950년대이다. 그러나 교회가 처음 한국을 접한 것은 1910년 1월, 당시 일본 선교부 회장에서 해임된 앨마 오웬 테일러가 함께 봉사한 선교사 프레드릭 에이 케인 장로와 함께 한국과 중국을 방문했을 때였다. 제일회장단은 이 지역에서 선교 사업이 가능한가를 판단하기 위해 그 여행을 승인했다.

김호직 박사의 개종

테일러 회장이 다녀간 후 수십 년 동안 한국인들은 일본의 식민지화와 군국주의, 아시아-태평양 전쟁, 러시아와 중국의 압력, 북한의 공산화와 한국 전쟁 등으로 인한 혼돈과 시련의 시대를 겪어 내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희망의 불씨가 저 멀리 미국 뉴욕 주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한국의 대통령이 수원농업시험소 책임자였던 김호직을 미국으로 보내 한국인의 영양 상태를 향상할 방법을 배우게 한 것이 한국 교회의 태동이 된 것이다. 김호직은 영양학 대학원 과정이 유명한 코넬

대학교를 선택했다. 1949년, 그는 박사 과정을 시작했고 동시에 뉴욕 주 이타카 지역의 여러 교회 모임에 참석하며 “참된 교회”를 찾기 시작했다.¹

김호직은 코넬 대학교에서 올리버 웨이먼이라는 특별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지 않았고, 험한 말은 한마디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일요일만 되면 어디론가 사라졌다. 어느 날, 김호직은 올리버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당신은 왜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생활합니까?” 올리버는 그 답으로 책을 한 권 내밀었다. 제임스 이 탈매지(1862~1933) 장로가 쓴 신앙개조라는 책이었다.

김호직은 일주일 만에 그 책을 다 읽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해 받은 물문경도 읽었다. 그는 두 책을 모두 믿었고 올리버에게 물문경이 “성경보다 더 완전하고 이해하기 쉽다”²고 말했다. 참된 복음의 메시지에 목말라 있던 김호직은 이 새로운 복음의 진리를 접함으로 그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는 곧 선교사들과 토론을 시작했고, 망설임 없이 침례를 받기로 결정했다.



사도이자 교회 군복무자 관리 책임자로서 1954년 한국을 방문한 해롤드 비 리 장로(가운데, 모자를 쓰지 않은 사람)

한국의 교회

회원 수: 85,628
 선교부: 4
 집회소: 128
 성전: 1

*2014년 1월 현재



1951년 7월 29일, 김호직은 바라던 대로 100여 년 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침례 받은 사스캐하나 강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때 그의 나이 46세였다.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나올 때 김호직은 컷가에 올리는 뚜렷한 음성을 들었다. “내 양을 먹이라.”³ 그 음성은 훗날 한국 땅에 복음이 뿌리내리는 데 헌신하도록 그를 이끌었다.

전쟁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접어든 1951년 9월, 김호직 박사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마음속에는 회복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부산으로 귀국하는 날 공항에서 후기 성도 미군들이 예배 보고 있는 곳으로 직행했다. 그는 미군 모임에 방문하는 한국인들을 위해 복음 교리를 설명하고 간증을 나누었다. 청소년들에게 영어로 복음을 가르치는 젊은 후기 성도 미군들을 위해 친절하게 통역과 설명을 해 주는 나이 든 김호직 박사의 겸손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의 이러한 모범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전쟁의 상처에 아파하던 한국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은 단비와도 같았다. 김호직 박사의 헌신적인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어, 1952년

8월 3일, 부산에서 처음으로 네 사람이 침례를 받았다.

문교부 차관 등의 바쁜 공직 생활 중에도 김호직 박사는 일단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구주와 함께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과 재산과 직책을 다 포기한다 해도 상관치 않을 것입니다.”⁴ 하나님을 섬기려는 이와 같은 그의 결의는 그의 삶으로 증명되었다.

국내에 선교부가 없었음에도 복음은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고, 그 성장은 교회 본부의 지도자들이 보기에다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1954년 9월, 한국을 방문하고 유타로 돌아간 십이사도 정원회의 해롤드 비 리(1899~1973) 장로는 한국인 성도들의 신앙과 열정을 소개하며 곧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것을 소망한다고 밝혔다.⁵ 드디어 1955년 4월 7일,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일본 선교부를 북 극동 선교부와 남 극동 선교부로 나누며, 한국을 북 극동 선교부에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선교사 파견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한국의 성도들은 불안한 한국 정세를 알기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기다렸다.

선교 사업의 시작

1955년 8월 2일, 서울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장충단 언덕에 선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은 한국을 주님의 땅으로 헌납했다. 이로써 전임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이다. 스미스 회장이 한국 땅에 다시 평화와 번영이 찾아오도록 기도하는 동안 사망은 고요했다.⁶ 헌납한 그날 저녁에 스미스 회장은 한국 지방부를 조직했고 김호직을 초대 회장으로 불렀다. 이어 부산을 방문하여 부산 지부를 조직했다.

1956년 4월, 여전히 불안한 한국의 정세에도 불구하고 새로 부름받은 북 극동 선교부 회장은 리차드 테튼 장로와 돈 파월 장로를 한국에 보내야겠다는 영감을 받았다. 김호직 박사를 포함한 64명의 한국인 성도들과 후기 성도 미군 병사들의 노력이 한국 교회에 햇빛과 수분이 되어 주었고, 이제 그 위에 전임 선교사라는 양분이 더해진 것이다. 이때부터 수많은 사람이 개종했고,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했다.

초기 성도들의 신앙

이렇게 선교 사업이 활발해지고 교회가 발전하며 한국

재능이 뛰어난 그에게 여러 교회 성가대에서 보내 주던 후원금이 모두 끊기고 주변의 친구들도 다 떠나갔다. 이런 그를 따뜻하게 맞아 준 사람이 김호직 박사였다. 그의 도움으로 다시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을 찾게 된 정대판은 후에 교리와 성약을 번역하고 찬송가를 편집하는 등 한국 교회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그가 번역한 찬송가의 아름다운 가사는 지금도 성도들의 심금을 울린다.

성도들의 수가 차츰 증가했다. 드디어 1962년 7월, 한국 선교부가 조직되었고 한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던 형제가 선교부 회장으로 부름받았다. 그는 몰몬경을 한국어로

1910년: 일본 선교부 회장인 엘마 오웬 테일러가 한국을 방문



◀ 1951년: 김호직이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침례 받음

1952년: 최초로 한국인들이 한국에서 침례 받음



◀ 1955년: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이 한국을 현납하고 한국 지방부를 조직함

1956년: 김호직이 정부를 설득하여 최초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도록 허가받음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었지만 종종 그들의 신앙은 시험을 받았다.

한국에 최초로 부임한 헌신적인 선교사에게서 복음을 배운 사람 중에 정대판 형제가 있었다. 그는 훌륭한 목사가 되어 한국 기독교를 이끌겠다는 당찬 포부를 품고, 재학 중이던 서울대학교를 그만두고 신학 대학에 입학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그에게 영어로 된 몰몬경을 한 권 주었다. 책을 읽어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 신학교 수업 시간에도 몰몬경을 읽게 되었다. 동료들이 물으면 성경과 같은 책이라며 사서 읽어 보라고 권유하기까지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교에서 난리가 났다. 정대판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이단 종파에 빠졌다는 것이었다. 급기야는 그를 교무실로 불러 몰몬경과 학교 중 하나를 택하라고 강요했다. 그의 말을 빌리면 그는 이미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기에 사실 그 문제는 그에게 그리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개종 후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신학 대학 수석 장학생으로 받던 혜택, 음악적

번역하고 출판하는 것을 자신의 최우선순위로 삼았다. 그 당시 이미 번역되어 있던 몰몬경 원고를 보고 여러 상황들을 숙고하고 기도한 끝에 그는 번역 작업을 당시 전임 선교사였던 한인상 장로에게 다시 맡겼다. 기존의 두 번역본을 검토한 후⁷ 한인상 장로는 성공적으로 새로운 번역본을 완성했으며 1967년, 그의 노고로 한국 최초의 우리말 몰몬경이 출판되었다.

모국어로 된 몰몬경이 나온 이후부터 많은 한국인들이 교회를 찾기 시작했다. 직접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서 선교사들이 따로 구도자를 찾아 나설 필요가 없을 정도였고, 일부 선교사들은 하루 종일 가르치는 일에 매달리기도 했다. 이렇게 교회가 발전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침례받은 후 군에 입대했던 천낙서 형제는 힘들었던 경험을 이렇게 회상한다. “군복무 기간 3년 내내 제 신앙과 간증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중대장이 취한 채로 술을 여러 병 들고 와서 중대원들에게 일일이 술을 권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후기 성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늘 제게 온 술잔을 비워 주었습니다. 허나 그날 저녁, 술 취한 우리 중대장은



저를 유심히 지켜보다가 저에게 잔을 비우라고 했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말하자, 그는 권총을 빼서 저를 향해 겨냥하면서 마시라고 명령했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했습니다. '중대장님,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그는 '말릴 수 없는 놈이구나.' 하고 말하며 권총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중대장은 저에게 와서 전날 밤의

두었다.⁹

한국 최초의 스테이크와 성전

한국 성도들은 스테이크 설립의 희망을 품은 채 1973년을 맞이했고, 그 해 3월 8일, 십이사도 정원회의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이 한국에 최초의 스테이크를 조직했다. 역사적인 이 한국 최초의 스테이크는 8개 와드와 2개 지부로 구성되었다. 한국의 교회 회원들은 이제 한국인 교회 지도자들이 이끄는 스테이크에 속하여 한국인 축복사의 축복을 받으며 예수

1960년대: 서울, 부산, 인천, 광주에 지부가 조직됨.

1962년: 한국 선교부 조직

▶ 1967년: 한국어 몰몬경 출판



1973년: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대륙 최초의 스테이크가 서울에 조직됨.



◀ 1980년: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이 교회 회장 최초로 한국을 방문함.



일을 사과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종종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저와 상의하기도 했습니다.”⁸

천 형제는 한국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고, 후에 미국 메릴랜드 주 알라메다 와드의 감독으로 봉사했다.



선교 사업에 대한 한국 성도들의 열정 또한 교회의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 회원 선교사 중 한 사람인 잠실 와드의 이성만 형제는 50대에 교회에 들어왔다. 인생에 많은 굴곡이 있었으나 그는 늘 자신의 종교 생활에 긍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구두 수선공인 그는 가게 안에 몰몬경을 쌓아 놓고서 손님들에게 읽어 보라고 권유하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몰몬경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해서 친척들을 포함하여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 그는 표준 경전을 수십 번 읽었으며, 죽는 순간에도 경전을 머리맡에



몰몬 도움의 손길 자원봉사자들이 서울의 한 축제 장소에서 수천 킬로그램의 김치를 만들고 있다. 이날 만든 김치는 여러 교회와 민간 단체를 통해 빈곤층에 전달되었다.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게 되었다.

선교 사업은 전보다 더 바빠졌다. 1973년 한 해 동안 1,200여 명이 침례를 받았다. 한국의 회원 수는 곧 8,000명을 넘어섰고, 700명 이상의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가 있었으며, 와드와 지부의 수는 31개에 이르렀다.

12년 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 온 한국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원했던 성전을 갖게 되었다. 1985년 12월 14일, 당시 제일회장단 제1보좌였던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이 한국 서울 성전을 헌납했다. 한국 성도들과 오랜 인연을 맺어 온 힝클리 회장에게 한국 서울 성전의 헌납은 각별한 것이었다. 그는 한국에서의 추억을 회상하며 “한국인들은

서울로 올라갔다. 새벽 2시나 3시쯤 성전에 도착하면 잠깐 눈을 붙이고, 새벽 5시에 예비 의식부터 시작하여 엔다우먼트 의식까지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밤 10시가 넘었다. 다음 날 안식일도 종일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회원들을 방문하며 하루를 보냈다. 당시 스테이크 회장이었던 김충석 형제는 “모두들 녹초가 되었지만 행복했습니다.”라며 그때를 회상한다.

수십 년이 흐른 지금 한국의 교회는 성숙해 가고 있다. 한국 성도들은 가족의 가치와 선지자들이 제시한 우선순위를 따라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점점 더 많은 한국 성도들이 가정에서 하는 예배의 중요성, 즉 가정의 밤과 가족 기도, 가족 경전 공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전임 선교사로

▶ 1985년: 한국 서울 성전을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헌납



1988년: 브리검 영 대학교 민속무용단이 서울 올림픽 개막식에서 공연



◀ 1991년: 한인상 장로가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음. 한국어 몰몬경 판매 부수 백만 권 돌파

2001년: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가 한국의 이한동 총리를 예방

침략과 전쟁으로 시련을 겪어 왔지만 평화를 사랑하는 친절한 민족입니다. 저는 이 세상 어느 곳보다도 한국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¹⁰라고 말했다. 힝클리 회장이 헌납 기도를 할 때, 참석한 많은 사람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초겨울의 매서운 날씨였지만 그날 한국 서울 성전에 땀을 흘린 따뜻하고 온화한 주님의 영은 모든 사람의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성전에 보관 중인 그림 중에는 1970년에 침례 받은 호희순 자매를 그린 작품이 있다. 호희순 자매는 80대의 나이에 성전 사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1,500명 이상을 위해 엔다우먼트를 받았다. 2007년 한 해 동안 그녀는 6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위해 대리 의식을 받았다. 그녀의 봉사에 감명을 받은 어느 미국인 화가가 그녀의 초상화를 그려서 서울 성전에 기증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그 외에도 성전 사업에 대한 한국 성도들의 열의는 대단했다. 그 중 마산 스테이크(현 창원 스테이크)는 1995년부터 성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기 시작했다. 매달 두 번째 금요일 오후, 전세 버스가 진해, 창원, 진주, 사천과 거제를 들러 성도들을 태우고

봉사하는 한국인의 수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다. 오랜 기간 혼돈과 시련의 시기를 거쳐 한국에 비친 복음의 빛은 초기 개척자들의 헌신적인 신앙을 싹트게 했고, 이제 그 빛은 한국 회원들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 내고 그들의 신앙만큼이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이끌고 있다. ■

주

1. 데니 로이, “김호직: 한국인 개척자”, *성도의 빛*, 1989년 2월호, 10쪽 참조.
2. 데니 로이, “김호직”, 11쪽에서.
3. 데니 로이, “김호직”, 12쪽에서.
4. 데니 로이, “김호직”, 14쪽에서.
5. Harold B. Lee, Conference Report, Oct. 1954, 125~131 참조.
6. Robert H. Slover, “Korea Dedicated to Preach the Gospel,” *Church News*, Sept. 10, 1955, 4 참조.
7. 몰몬경은 1961년에 홍병식 형제가 한국어로 번역했으며, 그 중 제3니파이 부분이 1962년에 출판되었다. 그 후 정대판 형제가 고든 비 힝클리 장로에게서 성인을 받고 1964년에 몰몬경을 다시 번역했다. 그러나 한국 교회 신권 지도자들에 의해 한인상 장로의 번역본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8. 천낙서 형제의 일지에서 발췌.
9. 2011년 4월 8일 이 형제의 장례식에서 그의 감독이 전한 말씀 중에서.
10. 1985년 12월 14일 한국 서울 성전 헌납식 기록에서 발췌.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남성과 여성, 그리고 신권 권능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며,
그분 보시기에
동등하되 그분께서
주신 서로 다른
책임과 능력이 있고,
그분의 신권 권능을
향유할 수 있음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합시다.

19

39년은 제 할아버지인 십이사도 정원회 멜빈 제이 벨라드(1873~1939) 장로님이 백혈병 말기로 병상 생활을 하실 때였습니다. 당시 할아버지 곁에서 병상을 지키셨던 제 아버지는 할아버지께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앉으시더니 입원실을 둘러보시고는 마치 회중에게 하듯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제 여러분, 똑바로 생각합시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부디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 똑바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딸들을 사랑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딸들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소중하고 필수적인 존재들입니다. 저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일에서 여성들이 맡은 필수적인 역할에 대해 여성과 남성 모두가 이해해야 할 진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딸입니다. 우리는 전세에서 그분과 함께

살았습니다.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모세서 1:39)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들의 궁극적인 가능성을 성취하도록 한 계획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의, 또 교회 안에서의 여성의 위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인터뷰한 국내 및 국제 언론인 상당수가 이 주제에 대해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가 우리 교회에서 여성은 한 단계 낮은 일원이라는 생각을 암시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실이 이보다 왜곡될 수는 없습니다.

이 중요한 주제와 관련하여 숙고하고 똑바로 생각해야 할 다섯 가지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의 승영을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으며, 이들은 그분의 영의 딸이고 아들입니다.



이것은 성별이 영원한 것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과 그분의 아들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모든 사람이 영생의 상속자로서의 자신의 운명을 실현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은 완전하십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대한 그분들의 소망 또한 완전합니다. 그분들의 일과 영광은 자녀들이 승영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승영하는 것이 그분들의 가장 큰 목표이자 목적이라면, 그리고 그분들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완전하시다면, 분명히 그분들은 우리가 승영할 자격을 갖추 수 있도록 돕고 가르치고 인도할 가장 좋은 방법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예견하시며, 모든 것을 이해하십니다. 그분의 이해와 지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인류가 영생을 받도록 가장 잘 준비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딸들에게 어떤 기회가 필요한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 아신다는 점에 동의해야만 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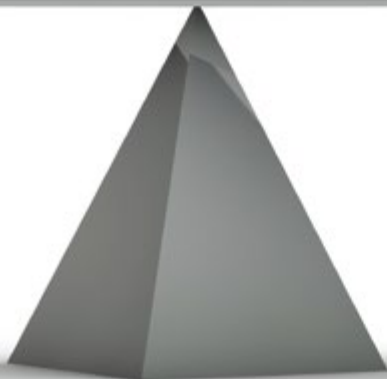
그분들이 우리의 귀향을 돕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특권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간증, 우리 마음의 평안과 개인적인 안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심을 기꺼이 믿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2. 교회는 신권 열쇠로 다스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며, 그분의 교회는 신권 권세와 신권 열쇠를 통해 다스려집니다. “신권 열쇠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신권 사용을 지도하고 통제하며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신권 지도자에게 주신 권세이다. 신권 열쇠의 행사는 신권 열쇠를 소유한 사람들이 관리한다.(교리와 성약 65:2; 81:2; 124:123 참조) 신권 열쇠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관할 구역 내의 교회를 감리하고 지도하는 권리가 있다.”¹

신권의 열쇠를 가진 이들은 그들의 인도 하에 충실히 봉사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신권 권세를 행사하고 신권 권능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남자와

여성이 남성 없이 임신할 수 없듯이 남성도 여성 없이는 영원한 가족을 이루기 위한 신권 권능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영원한 관점에서 출산 능력과 신권 권능은 모두 남편과 아내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열쇠를 가진 이들의 인도를 따릅니다.²

제가 2013년 4월 연차 대회에서 드린 말씀을 반복하겠습니다. “신권이 부여되는 이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남성은 신권을 베풀 고유한 책임이 있지만, 남성이 곧 신권 그 자체는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각자 하는 역할은 동등한 가치를 지닙니다. 여성이 남성 없이 임신할 수 없듯이 남성도 여성 없이는 영원한 가족을 이루기 위한 신권 권능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영원한 관점에서 출산 능력과 신권 권능은 모두 남편과 아내가 공유하는 것입니다.”³

왜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 신권 직분에 성임될까요? 고든 비헝클리(1910~2008) 회장님은 “교회의 남성들이 신권을 갖도록 제정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며, 여성들에게 “이 위대하고 훌륭한 조직, 곧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완전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라고 설명하셨습니다.⁴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왜 이렇게 조직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많은 문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으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임을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목적과 지혜에 따라 이 교회를 조직하셨음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분께서 그분의 아들과 딸, 즉 자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가장 위대한 축복이 되는 방식으로 그분의 교회를 조직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저는 이러한 것이 참됨을 간증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임을 간증합니다. 여성들은 교회의 관리와 사업에 필수적입니다. 그들은 상호부조회, 청년회, 초등회에서 지도자로 봉사하며 교사, 전임 선교사, 성전 봉사자로 일하고, 또한 가정에서 일합니다. 가정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가르침의 절반 가량은 자매들을 통해 이행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매들이 수행하는 지도자 역할은 상당합니다. 많은 봉사 기회와 봉사 활동 역시 여성들이 계획하고 주도합니다. 여성들은 와드 및 스테이크 평의회, 교회 본부에서 이루어지는 본부 평의회에 참여하고 조언함으로써 통찰력, 지혜, 그리고 균형을 더해 줍니다.

20년 이상 동안 저는 평의회와 중요성과 여성 지도자들의 필수적인 참여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몇몇 신권

지도자들을 포함한 일부 형제들이 아직 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와드 및 스테이크 평의회에서 자매 지도자들과 완전한 협력 관계를 이루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또한 여성을 억압하며 일부 드문 경우, 여성을 학대하는 남성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어떤 방법으로든 여성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남성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자매 지도자들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참여시키지 않는 신권 지도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열쇠를 충분히 존중하지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것임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방식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 신권 지도자의 힘과 영향력이 축소될 것입니다.

자매 여러분, 효과적인 평의회에서 여러분이 의견을 내는 것은 중요하고 바람직하지만, 여러분의 것이 아닌 역할까지 도맡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성공적인 와드 평의회와 스테이크 평의회에서는 신권 지도자들이 자매 지도자들을 신뢰하고 토론에 기여하도록 장려하며, 자매 지도자들은 열쇠를 지닌 신권 지도자들의 인도 하에 이루어진 평의회 결정에 온전히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3.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동등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께도 교회에서도 동등하지만, 동등함이 똑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의 책임과 신성한 은사는 그 본질이 다르지만 중요성이나 영향력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성별이 다른 성별보다 더 우월하거나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헝클리 회장님은 여성들에게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는] …… 결코 여러분이 누리는 영광이 그분의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에 못 미치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⁵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성의 임무를 여성의 임무와 비교하고, 여성의 임무를 남성의 임무와 비교할 때 혼돈에 빠져 똑바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저는 일생 동안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저에게는 누이가 셋 있고 (저는 외동아들이었습니다.) 딸이 다섯 명, 손녀가 스물 네 명, 증손녀가 열아홉 명 있습니다. 물론

63년간의 축복된 결혼 생활을 제게 선사한 아내 바바라도 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오래 전에 배웠습니다. 아내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고 하거나 우리 가족 일에 대해 강한 느낌이 든다고 말할 때 제가 그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아내가 영감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젊은 독신 자매들과 젊은 어머니들이 때로 어떻게 느끼는지, 또 어떻게 자신의 가치와 기여하는 능력을 의심하는지 잘 압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생각과 기도가 하늘을 향할 때, 그들이 힘과 확신, 즉 아버지와 아들이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신다는 확신을 축복으로 받을 것임을 간증합니다.

여성들은 독특한 영적 은사와 성품을 가지고 지상에 왔습니다. 특히 어린이들, 가족,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들의 복리를 염려한다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재능, 다른 강점, 다른 관점과 성향을 지녔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하며, 교회에서 주님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서도 역시 남성들과 여성들이 필요합니다. 의롭게 함께 일하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온전하게 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우리 삶의 목적을 함부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신권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성전에 가서 둘 다 같은 권능, 즉 신권 권능을 부여받습니다. 신권의 권능은 신권 열쇠를 통해 행사되며 신권 열쇠는 오직 합당한 남성만이 소유하지만, 신권의 권능과 축복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받을 수 있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신권의 축복은 남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축복은 또한 교회의 모든 충실한 자매들에게도 주어집니다. …… 주님은 그분의 아들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은사와 축복을 딸들에게도 주십니다.”⁶

물로 침례를 받고, 후에 주님의 집에서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은 사람들은 풍족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엔다우먼트는 말 그대로 권능의 은사입니다. 주님의 집에

들어간 모든 사람은 신권의 의식을 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권능을 주시는 데 관대하십니다. 모든 남자와 여자는 삶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이 권능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그 성약에 충실한 모든 사람은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고, 천사의 성역으로 축복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복음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옆에서 아버지께서 지니신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5. 교회는 여성의 목소리와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성들의 분명하고 영향력 있는 목소리와 신앙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교리를 배우고 우리가 믿는 바를 이해하여 모든 것의 참됨에 대한 간증을 나누는 여성들이 필요합니다. 그곳이 청년 야영의 모닥불 주변이든, 간중 모임이든,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든 말입니다. 오직 충실한 후기 성도 여성들만이 성약을 맺은 하나님의 딸들이 어떤 모습이고 무엇을 믿는지를 세상에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목적이 축소되고 간과되는 것을 그저 서서 구경만 해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교회 안의 자매님들에게, 자신의 신앙과 간증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도록 하늘의 인도를 구하시라고 권유합니다. 총관리 역원들과 본부 역원 자매님들만으로는 이 일을 해 낼 수 없습니다. 전임 선교사들만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신권 지도자들과 보조 조직 역원들만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계획을 옹호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구주를 옹호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이며 그분의 교회가 지상에 회복되었고 만사에 옳고 그름이 있음을 간증해야 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교회를 옹호할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우선 복음의 진리를 공부하는 것으로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겸손한 기도와 연구를 통해 우리가 찾는다면 “모든 것의 참됨을 알 [수 있다]”(모로나이서 10:5)는 모로나이의 약속을 실천하여 자신의 간증을 굳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정비하거나 조정하려고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다르게 조직해야 할지 규정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의미 없는 노력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에 계시며, 우리 모두는 그분의 인도에 따릅니다. 남자와 여자는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속죄에 대한 더 큰 신앙과 간증이 필요하며, 그분의 가르침과 교리에 대한 더 큰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신이 우리에게 할 일과 할 말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맑은 정신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경시하는 혼돈의 세상에서 똑바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영향력의 범위는 고유하고 특별하며, 남성들이 따라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내면의 힘과 확신을 지닌 하나님의 딸들은 다른 누구보다 강한 설득력과 힘으로 우리 구주를 옹호할 수 있습니다. 개종한 여성의 목소리에 담긴 힘은 측량할 수 없으며, 교회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남자와 여자, 청남 청년, 소년 소녀들이 한마음으로 서야 하는 때임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지지하기 위해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옹호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관심 밖으로 밀어냅니다. 우리는 교회의 회원으로서 이 세대를 방관하고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단순한 진리들을 연구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것을 나누는 용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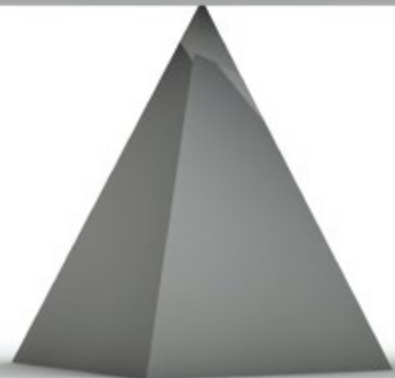
2013년 8월 20일 브리검 영 대학교 영적 모임에서 전한 말씀. 영어로 된 전문은 speeches.byu.edu에서 볼 수 있다.

주

1.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2.1.1.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23쪽 참조.
3. 엠 러셀 벨라드, "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 리야호나, 2013년 5월호, 19쪽.
4. 고든 비 힝클리, "교회의 여성들", 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70쪽.
5. 고든 비 힝클리, "세상의 속임수에 굳건하게 맞섬",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98쪽.
6. Joseph Fielding Smith, "Magnifying Our Callings in the Priesthood," *Improvement Era*, June 1970, 66.



신권의 권세는 신권 열쇠를 통해 행사되며 신권 열쇠는 오직 합당한 남성만이 소유하지만, 신권의 권능과 축복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받을 수 있습니다.



멈추라는 말이 들렸다

나는 아들과 함께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친 야영을 계획하며 온갖 야외 활동을 생각해 두었고, 모처럼 부자가 함께하는 이 야영이 무척 기다려졌다. 칼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금요일에도 일을 해야 했다. 그래서 금요일 퇴근 시간에 내가 데리러 가기로 했다. 우리는 야영장 위쪽에 있는 다리에 차를 세우고 야영장까지 산을 타고 내려갈 계획이었다.

다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웠고, 하늘에는 가느다란 달과 별이 몇 개 떠 있을 뿐이었다. 야영장으로 이어지는 산길은 강 양쪽으로 뻗은, 절벽을 깎아 만든 길이었다. 우리는 그 강의 수면으로부터 275미터 정도 되는 지점에서 산행을 시작했다.

길을 내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갖고 있던 손전등 불빛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희미한 불빛 아래서 길도 사라지는 듯했다.

길을 내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갖고 있던 손전등 불빛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희미한 불빛 아래서 길도 사라지는 듯했다. 갑자기 뭔가 멈추라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순간 멈춰 섰다가 다시 두 걸음을 떼었다. 그 느낌, 아니 그 목소리가 다시 한 번 말했다. “멈춰!” 나는 다시 멈췄다. 바로 뒤에 있던 칼은 나와 부딪칠 뻔 했다.

“무슨 일이예요, 아빠?” 아들이 물었다.

나는 그 느낌에 대해 이야기했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와야겠다고 말했다.

아들이 대답했다. “아빠, 저기 야영장 모닥불이 보여요. 1마일(1.6킬로미터)도 안 남았어요.”

하지만 나는 그 느낌이 성신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기에, 우리가 한 발도 더 나아가지 말아야 한다고 고집했다. 손전등은 꺼져 버렸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왔던 길을 되돌아 올라갔다. 실망한 칼은 집에 가는 길에 말이 별로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는 어제의 다리로 돌아와서 다시 산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어쨌든 칼의 토요일 활동 시간에 맞추어 하이킹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았다. 서둘러 움직이던 우리 앞에서 갑자기 길이 사라졌다. 그리고 깨달았다. 전날 밤에 멈췄던 바로 그 지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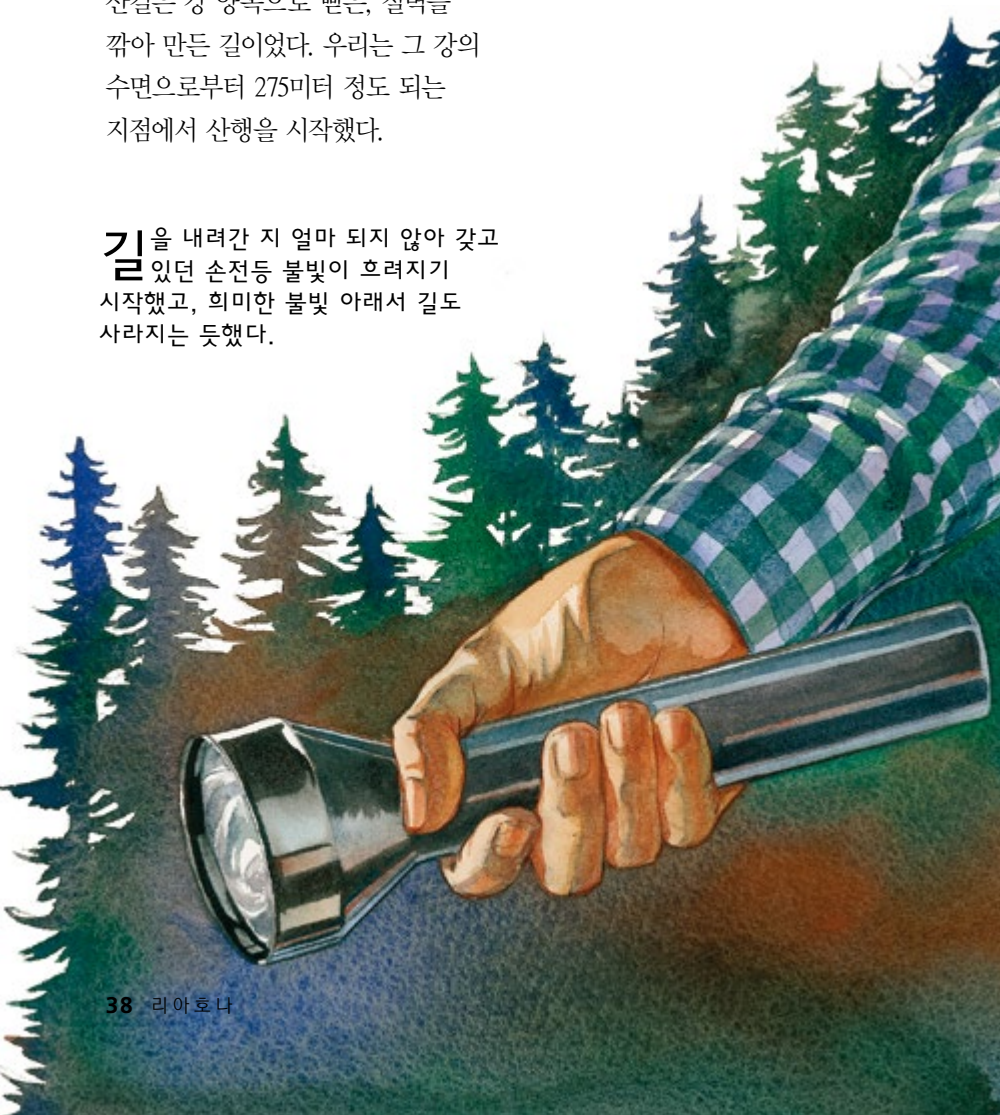
“아빠, 저 아래 강까지 최소한 91미터는 되어 보여요.” 칼이 말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절벽은 우리 아래로 가파르게 강까지 내려지르고 있었다. 우리 앞에서 사라진 길은 3.6미터 정도 앞에서 다시 이어졌다. 최근에 불었던 폭풍우로 길이 끊긴 것이다.

칼과 나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 부둥켜 안았다. 그리고 다른 길을 찾아서 야영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아침 식사 시간에 잘 맞추어 도착했다.

우리가 처음에 들어섰던 그 길 앞에는 경고문이 있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성신으로부터 경고를 들을 수 있었다. ■

로날드 디 콜비, 미국 유타



몰몬경을 펼쳐라

나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스테이크의
고등평의원으로서 비엔나에 있는
와드에 한 달에 한 번 참석한다. 나는
비엔나에서 19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기 때문에 종종 기차를 타고 그곳에
간다.

어느 일요일, 와드를 방문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 당황스럽게도 나는
지갑이 없어진 것을 깨달았다. 잃어버린
것인지 도둑맞은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걱정이었다. 지갑 안에는 돈이 조금 들어
있었고, 성전 추천서와 신용 카드와 다른
중요한 카드 여러 장이 있었다.

다음 날, 직장에서도 일에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지갑을 마지막으로 사용한
때가 언제? 어디에 두고 왔나?’ 하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 나는 경찰에
전화했고 기차역과, 내가 참석했던
그 와드 감독님에게도 전화를 했다.
아무도 발견한 사람이 없었다. 기도도
드렸다. 하루가 지나는 동안 기도는 더
간절해졌다. 밤에 잠도 푹 못 잤다.

이튿날 아침에 기도를 드리는데, 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몰몬경을
펼치라는 강한 영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그냥 무시했다. 몰몬경의 어떤
구절도 잃어버린 내 지갑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테니 말이다.

그 느낌이 나를 재촉했다. “왜
의심하는 거지? 기적은 먼저 신앙이
필요해! 일단 책을 펼쳐 봐. 처음 눈에
들어오는 성구가 너에게 답을 알려 줄
거야.”

나는 이 느낌을 터무니없는 나의
희망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마음속의 그 느낌은 끈질긴 싸움 끝에

승리를 거뒀다. 나는 일어나 책상으로
가서 몰몬경을 집어 들었다. 기대감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나는 책장을
앞뒤로 펼쳐 보지는 않았다. 그냥
책을 펼쳐서 야곱서 3장 1절을 읽었다.
“굳건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터운 신앙으로 그에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의 고난의 때에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요, 너희의 사정을
변호하사 ……” 마음이 벅차서 더 읽을
수가 없었다.

주님께서 내 사정을 변호하실 것이다!
나는 위로받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
직장에 갔다. 오전 11시에 기차역의

경찰에게서 내 지갑이 접수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다음 날 지갑을 받아
왔다.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다.

주님께서는 내 고난의 때에 나를
위로하셨다. 그분은 내 사정을
변호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몰몬경을 통해 내 기도에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방법으로 응답하셨다. 나는
언제나 몰몬경을 사랑했지만, 이 경험을
한 후 몰몬경은 나에게 더없이 소중한
책이 되었다. ■

에두아르트 마이어, 오스트리아
오베뢰스터라이히

아침에 기도를
드리는데, 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몰몬경을 펼쳐라는 강한
영감이 느껴졌다.



내가 몰몬경을 사랑하는 이유

약 30년 전에 차를 몰고 유타에 처음으로 갔었다. 나는 기독교와 매우 동떨어진 삶을 살았었고, 그걸 바꾸고 싶어했다. 그러나 방법을 알지 못했다.

유타에서 이틀째 날, 나는 남부 유타의 작은 마을에 있는 모텔에 묵었다. 관리하시는 아주머니에게 방 열쇠를 받으면서 후기 성도시냐고 물었다. 그녀는 유쾌하게 “네, 맞아요.”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의 훌륭한 책, 몰몬경을 읽어 보셨어요?” 놀라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던 나는 읽어 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방에 가시면 한 권 있어요. 이 마을에 손님이 구경할 만한 건 없으니 그 훌륭한 책을 읽어 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나는 감사하다고 말하고는 짐을 들고 방으로 갔다. 갈색 종이 표지에 몰몬경이라고 쓰인 책이 침대 옆 탁자에 놓인 것이 보였다.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책의 가운데 부분을 펼쳐서 몇 구절을 읽었지만 머릿속이 하얗다. 이해가 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실망한 나는 책을 내려놓고 공허함을 느끼며 방을 나왔다. 차를 몰고 돌아다니며 술집을 하나 찾았다. 어둡고 흥한 곳이었다. 안에 들어서자 즉각 비참하고 외롭고 절망적인 기분이 몰려왔다. 몇 분이나 거기 선 채 있다가 몸을 돌려 밖으로 걸어 나왔다. 앞으로 다시는 내 인생의 한순간도 술집에서 낭비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말이다.

활기를 찾은 나는 모텔 방으로 돌아와서 몰몬경을 다시 손에 잡았다. 나는 내가 잘 몰랐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했다. 영망으로 살아 온 내 인생에 대해 그분의 용서를 간구했고, 몰몬경에서 읽는 것들을 이해하게 해 주시고, 조셉 스미스가 진정 선지자였는지, 또 몰몬 교회가 내가 갈 곳인지 알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나는 경건하게 책을 펼쳤고, 처음 눈에 들어온 구절은 “나는

명백함을 자랑하며, 나는 진리를 자랑하며, 나는 나의 예수를 자랑하노니, 이는 그가 나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속하셨음이라.”(니파이후서 33:6)였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흘렀다. 그 말씀은 놀라운 희망의 빛과 함께 눈에 들어왔다. 나를 그분께 나아오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의 빛이었다.

나는 흐느끼며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주님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리고 다시 책을 펴서 니파이전서 1장을 읽기 시작했다. 나는 니파이의 말씀과 간증이 지닌 비할 데 없는 힘과 순수함, 진리에 대한 놀라움으로 벅차 올랐다. 이튿날 새벽 두 시까지 책을 읽었고, 주님께서는 내가 읽는 동안 이해의 눈을 열어 주셨다.

6개월 후, 나는 침례를 받고 이 훌륭한 참된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나는 주님께서 내가 몰몬경을 찾고 읽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음을 안다. 몰몬경은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간증을 갖도록 해 주었다. ■

스티브 라하워, 미국 캘리포니아

모 텔 방 안에서 몰몬경이라고 써 있는 갈색 종이 표지의 책을 보았다.



내가 기르던 것은 아이들이었나 꽃이었나?

아 이들이 어릴 때 우리는 아름다운 정원이 딸린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현관 양 옆으로 빈 화단이 있었고, 나는 정원 일을 해 본 경험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거기에 꽃을 심을 생각에 신이 났다. 원예에 관한 책을 샀고, 모종과 종자 카탈로그를 주문해서 꼼꼼히 공부했다.

몇 달 동안 나는 정원을 구상하고, 토양을 준비하고, 200개가 넘는 알뿌리를 심었다. 결실을 보려면 몇 달은 더 기다려야 했지만, 잘 자라는지 자주 확인했다. 이른 봄부터 나의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작은 보라색 붓꽃을 시작으로 수선화가 뒤를 이었다. 봄이 중반에 이르자 화단은 아름다운 튜립으로 가득 찼다. 나는 내 정원을 사랑했고, 자주 현관 앞 계단에 앉아서 꽃들을 바라보았다.

어느 날 오후, 네 살배기 딸 에밀리가 친구를 한 명 데려와서 함께 놀았다. 그 친구 엄마가 아이를 데리러 올 시간이 되었을 무렵, 두 아이가 팔에 한가득 튜립을 안고 힘겹게 부엌 문으로 들어왔다. “선물이에요!”라며 둘은 행복하게 말했다. 튜립을 거의 다 꺾어 온 것이다.

튜립은 한 해에 딱 한 번 핀다. 속이 상했다. 그 많은 노력과 기다림은 어찌라고. 우리는 꽃을 여러 개의 화병에 나눠 담고 나머지는 에밀리 친구네 집으로

보냈다. 나중에 그 속상한 사건에 대해 친정어머니께 털어놓자,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네가 키우고 있는 것이 꽃이 아니라 아이들이라서 참 다행이구나.”

나는 내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딸들을 데리고 함께 불렀던, 꽃을 따 모으는 것을 노래한 초등학교 노래가 생각났다.

꽃을 보면 어머니 생각나요.

어머니, 내 사랑 꽃송이에 담아
드립니다.¹

나는 땅가진 내 정원만을 생각했지만, 네 살짜리 두 소녀는 사랑의 표현을 생각했던 것이다.

꽃밭을 가꾸는 일에는 인내심과 한발 물러나는 것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 일을 내 아이의 눈으로 바라보기까지는 더 많은 인내심이 필요했다. 그러나 어머니로서 인내할 때, 나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된다. ■

플라 솔트, 미국 미주리

주
1. “크로바 풀밭에서”, *어린이 노래책*, 109쪽.

두 아이가 팔에 한가득 튜립을 안고 힘겹게 부엌 문으로 들어왔다. “선물이에요!”라며 둘은 행복하게 말했다.





성약의 자매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모두에게는 가족
상황에 관계없이 늘
우리를 사랑하고
지지해 주는
자매들이 있다.**

에멀린 알 윌슨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를 시작하며 처음으로 맞은 일요일, 나는 새 와드의 다양성에 놀랐다. 상호부조회 사회를 보는 사랑스러운 자매님은 동유럽 출신이었다. 서아프리카에서 온 자매님들 몇 분이 나에게 친절하게 찬송가를 빌려 주었다. 준비한 공과를 힘겹게 불어로 가르치는 동양인 자매님은 내가 들어 본 중에 가장 심금을 울리는 공과를 들려주었다. 나는 고향에서 80,0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사는

젊은 미국인이었지만, 나는 교회에서 선한 자매님들 덕분에 내 집 같은 편안함을 느꼈다. 우리는 프랑스, 캄보디아, 코트디부아르, 우크라이나, 미국 등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지만, 연령과 문화의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자매애의 정신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었다.

대학 시절 처음 몇 해 동안 나는 내가 일생에 걸쳐 얼마나 멋진 자매들의 조직에 속해 있는지를 깨달았다. 자라는 동안 친자매가 없었기에 때로 나는 자매가 있을 때 뭐가 좋은지 절대 알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훌륭한 부모님과 오빠들이 있었지만, 함께 나누고 웃고 삶을 경험할 자매가 있으면 하고 바랐었다. 친자매는 아니지만 나는 “믿는 것[에서] …… 하나가 [되]”(에베소서 4:13) 자매들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많은 경험을 통해 이 충실한 여성들에게 정말로 의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덕분에 나에게도 자매들이 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가족간, 세대간, 문화와 성격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서로

더 멀어지게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실제로 자매들은 사랑과 봉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신성한 공통점으로 하나가 된다. 이런 화합은 우리가 침례 성약을 지키는 큰 힘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리 안으로 들어와, 그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기 원하며 기꺼이 서로의 짐을 저 가볍게 하고자 하며,

참으로 또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또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참으로 죽을 때까지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너희가 있게 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로]”(모사이야서 18:8~9) 약속했다.

하나님의 무리 안으로 들어옴

자매들은 여러 방법으로 그러한 침례 성약을 지키는 것을 서로 돕는다. 대만의 텅 창은 중학교에 다닐 때 “하나님의 무리 안으로” 들어왔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텅은 가족의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점심을 거르곤 했는데, 반 친구인 지나가 그것을 알아챘다. 지나의 어머니는 매일 텅과 나눠 먹도록



음식을 더 많이 준비해 주었다. 곧 지나의 친구에게 같이 교회에 가자고 초대했다. 지나의 어머니가 교회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지나의 선교사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다. 지나와 지나 어머니가 보여 준 사랑의 모범은 텅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였고, 그래서 텅도 선교사들과 만나기 시작했다.

텅과 지나의 함께 경전을 읽었고, 일기에 직접 경험한 성스러운 일들을 적었다. 두 소녀가 같은 날 침례를 받으며 두 사람의 자매애는 더 커졌다. 현재 두 사람은 모두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지나와 어머니, 그리고 텅은 주님의 표준에 따라 생활하고 그분의 이름을 짊어지는 것으로 자매가 되었다.

서로의 짐을 나눔

봉사를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자매애의 또 다른 상징이다. 동정 어린 봉사와 방문 교육은 그런 봉사를 위한 교회의 도구이다. 브라질의 자클린 소아레스 히베이루 리마는 자신이 조울증 진단을 받고 교회에 규칙적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 방문 교사들이 어떻게 삶의 축복이 되었는지를 이렇게 말한다. “남편 블라디미르는 제 병이 가장 깊었을





“오늘 밤
우리는 교회
여성으로서
우리가
맡은 여러
가지 역할을

기뻐합니다. 여러 면에서 다르고
독특하지만,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기에 우리는 우리가
자매라는 것을 압니다.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는
데에서, 그리고 우리가 맺은 성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보니 엘 오스카스, 본부 청녀 회장,
“자매애: 우리에게 서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119쪽.



무렵 저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어요. 남편은 최악의 순간들을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훌륭한 두
자매님이 제 방문 교사로 부름받기
전까지는요.”

그 두 여성, 리타와 파티마는 그
질환에 대해 더 공부하고 자클린의
가족을 도우며 사랑을 보여 주었다.
자클린은 지속적으로 두 사람의 진정한
관심을 느꼈다. 그들은 자클린을 위한
작은 파티를 열고 그녀의 딸을 위해 옷을
지어 주기도 하며 봉사했다. 궁극적으로,
리타와 파티마의 진심 어린 염려는
자클린을 영적으로 도왔고, 그들의 힘에
의지하여 교회에 정규적으로 나오게
되었다.

우리 자매들의 짐이 육체적이든
감정적이든 영적인 것이든 간에,
우리가 지친 젊은 어머니나 부끄럼
많은 새 꿀벌반 청녀, 외로운 연로한
자매님, 그리고 힘겨워하는 상호부조회
회장님에게 손을 뻗는 것은 멋진 일이다.
성약의 자매들은 “봉사와 선행에서
즐거움을 느끼며!”¹ 지치고 힘든
자매들을 찾아서 들어올린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함

신앙이 있는 여성들은 다정하게 다른
이들에게 다가갈 때 구주의 모범을
따른다. 경전에서 헌신적인 사랑의 가장
훌륭한 예는 아마 베들레헴의 나오미와
그녀의 모압 출신 며느리 룯일 것이다.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이 죽은 후에도
룯은 시어머니를 섬기기로 마음먹었다.

슬픔에 찬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두 여인은 문화적,
종교적 배경이 서로 달랐지만, 의롭게
생활하고 고난을 함께 헤쳐 나가며 서로
돕는 가운데 친구가 되었다.

룯의 모범과 봉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나오미의 한탄은 훌륭한
며느리이자 복음 안의 자매인 룯이 안겨
주는 행운에 대한 기쁨으로 바뀌었다.
그들의 결속이 참으로 강한 것을 보고
여인들이 이렇게 말했다. “찬송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네게] ……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 며느리를
주셨도다!”(룯기 4:14~15)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함

열여덟 살이 되고 한 달 후에
상호부조회 교사로 부름을 받은
타티티의 라이하우 가리키는 한 자매의
쪽지를 받고 위안을 얻었다. 그녀는
“어머니들과 할머니들,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시련을 겪었고, 수많은
경험을 한 자매들”을 가르치는 것이
긴장되었다. 첫 공과를 마친 후, 그녀는
한 반원에게서 “사랑이 가득한 쪽지”를
받았다. 이 쪽지는 그녀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그녀는 그 종이를 일지에 붙여
놓고 어려운 시기마다 그것을 읽고 힘을
얻었다.

복음 안의 자매들은 시련의 때에
서로 위로하고 지지한다. 유타에 있는
한 스테이크의 회장인 제이 스코트
페더스톤은 아내와 함께 막 남편을 여인
자매를 방문하러 갔던 일을 기억한다.



**성약을 맺은 여성들은
“봉사와 선행을
기뻐하며” 지치고
힘든 자매들을 찾아서
들어올린다.**



“아내는 그저 그 자매를 안고 함께 울며 위로하고 그녀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때로 자매애는 이렇게 단순한 것이다.

하나님의 증인이 됨

모든 연령의 여성이 “진리와 의를 수호하[려]”² 하나가 될 때, 놀라운 힘이 발휘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자매애는 점점 더 사악해지는 이 세상에서 각자의 상황이 어떠한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아주 어린 자매도 증인이 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제시카 보사니아코나는 초등학교 반에서 여섯 살 난 여자아이에게서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간증을 들었다.

연로한 자매들 또한 중요한 모범이다. 유타에 사는 킴 프로스트는 그녀가 복음 안에서 강하게 남도록 영향을 준 많은 여성들을 기억한다. 그중 한 사람은 어슬라 스콰이어스이다. 킴은 이렇게 말했다. “스콰이어스 자매님이 제 방문 교육 동반자가 된 건 아흔 살이 훌쩍 넘으셨을 때였어요. 시력도 청력도 약하셨지만, 복음에 전적으로 헌신하시는 분이었어요. 교회에 빠지는 일도 없으셨고 가정 방문도 성실하게 하셨지요. 자매님은 저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모범을 통해서든 간증을 나누는 것으로든, 자매들은 주님의 단합된 제자들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교회의 자매들

나는 여성들이 “어느 때에나 무슨

일에나, ……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모사이야서 18:9) 것을 보면서 진정으로 자매들을 갖게 되었다. 나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스퀘어 선교부, 즉 교회에서 유일하게 자매들로만 이루어진 선교부로 부름을 받았을 때, 솔직히 그렇게나 많은 여성들에게 둘러싸인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걱정되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자매애에 대한 나의 간증은 날마다 행동으로 구주를 간증하는 수많은 자매들과 더불어 지내면서 빠르게 자라났다.

선교 사업 중에 맞은 첫 성탄절에 우리 선교부 회장님은 모든 자매들을 불러 모아 감동적인 영화를 보여 주셨다. 영화의 한 부분에서, 두 자매가 서로 도우며 힘든 상황을 이겨 내는 장면이 있었다. 나는 그들의 화합에 감동을 받았다. 그 영화를 보며, 내 주위의 모든 빛나는 자매 선교사들을 둘러보았고, 영은 나에게 자매들과의 이 유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 주신 영원한 관계이며, 나도 그 일부라는 것을 강하게 간증해 주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가.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자매들을 주셨기 때문이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주

1. “상호부조회 선언문”, 후기 성도 여성상: 자매용 기초 교재(2000), xi쪽.
2. 청년 개인 발전 기록부(소책자, 2009), 2쪽.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는

토론토

캐서린 벨슨

캐나다 토론토 중심부에 위치한
 켄싱턴 시장은 전 세계의
 다양성을 담고 있는 곳이다.
 좁은 골목마다 가판대와 상점과 수많은
 국적의 음식을 파는 음식점이 즐지어
 있다. 살바도르, 멕시코, 페루 음식,
 물론 초보자는 프랑스 음식부터 시작할
 수 있다. 어느 방향이든 화사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 바구니들, 겹겹으로 된
 따스한 페스트리 빵이 기다리는 탁자,
 그리고 다양한 문화권의 생기 넘치는
 무늬가 돋보이는 옷들을 볼 수 있다.

토론토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문화는
 이민자와 원주민, 난민과 학생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토론토에 사는
 25세의 청년 성인 조나단 포터는 이렇게
 말한다. “와드에서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진 회원들과 함께 봉사하면서 제
 주변의 여러 문화와 저의 캐나다 문화,
 그리고 복음의 문화 사이의 차이점들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각 문화가 복음이
 가르치는 의로운 가치들을 뒷받침하는
 걸 보면 멋집니다. 이런 점 때문에 성신을
 통한 소통이 가능하고,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자신의 문화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조나단은 지도자의 역할에도 복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았다. “지도자들이
 종종 자신의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른
 지도력 유형을 보이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권 권세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조나단에게 종교 교육원은 소중한
 보물을 안겨 준다. “토론토에서 자라면서
 회원인 친구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 교육원에 가면 안전하고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우리는
 복음에 대한 사랑으로 단합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생활 방식과 우리의
 표준을 보며 우리가 독특하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조나단은 경험을 통해 사랑, 즉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모로나이서
 7:47)의 중요성을 배웠다. “종교 교육원의
 청년 성인들은 서로 많이 다르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사랑의 의미가 사소한

**캐나다 온타리오에
 사는 충실한 청년
 성인의 삶은 어떤
 것일까? 자신의 문화와
 신앙에 대해 소개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방식으로라도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임을, 출신 배경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이 사랑과 다양성은 선교 사업에
 축복이 된다. “이곳은 아주 많은 사람이
 개종 1세대거나 2세대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이곳에서 교회에 가입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복음을
 나누고 그들의 문화에 힘을 더합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이야말로 토론토 지역
 교회의 유산입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토론토 음식의 특징은 어떤가요?

다양한 종류의 카레와 아프리카 음식, 멕시코 음식을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메이카에서 온 이민자들이 많아서, 저는 로티와 쌀밥, 콩, 그리고 카레를 입힌 염소 요리도 좋아합니다.

취미는 무엇이죠?

외국어를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데, 친구들과 대화하며 연습할 수 있습니다. 5개 국어를 편안하게 구사합니다. 영어, 불어, 아이티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츠와나어(남아프리카 츠와나 부족의 언어)를 할 수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데이트는 어떻게 하나요?

토론토 젊은이들의 많은 수가 이민 2세대이므로 데이트 상대를 데리러 갈 때면 그 부모님도 같이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아직도 자국 문화를 고수하고 있어서 전통 음식을 맛보여 주십니다. 즐거운 경험이지요.

캐나다의 교회

회원 수 190,265명
 와드 327개
 지부 150개
 선교부 7개
 성전 8곳

숫자로 본 캐나다

인구 34,568,211명
 44개의 국립 공원과 보호 구역
 전 세계 북극곰의 50퍼센트가 캐나다에 서식함

캐나다에 대한 사실

수도: 오타와
 언어: 영어와 불어

인생의 기회를 위해 준비함

훌륭한 미래를 원하십니까? 교육을 받으십시오!

속 제가 밀리기 시작하고, 과연 이 모든 노력이 가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 제일회장단의 이 권고를 기억하십시오. 그분들의 지혜로운 말씀은 여러분이 조금은 더 의욕있게 다음 책장을 넘길 수 있도록 힘을 줄 것입니다.

교육이 여러분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 여러분이 좀 더 그분과 같이 되는 데 도움이 [되므로]”(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2011], 9쪽) 여러분은 온 힘을 쏟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하늘의 가르침

“여러분은 부모님에게서 여러 인생의 교훈을 배웠으며, 학교나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계시며 여러분은 그분의 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항해”,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57쪽.

인생의 바다

“인생은 교만한 자들이 겸손해지고, 책임을 회피하는 자가 결국 드러나며, 지도자 역시 드러나게 되는 바다입니다. 그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하여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항해 지도를 손에 가지고 있어야 하며 최신의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원리에 충실하며, 관심사를 넓히고, 같은 바다를 항해하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여러분이 기울이는 노력은 학교를 떠난 후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기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분투할 때, 사고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Great Expectations”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Jan. 11, 2009), 4; speeches.byu.edu.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준비가 행위를 낳는다

“인생의 기회와 책임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사회에 살고 있으며, 심한 경쟁이 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 가장, 할아버지, 부양자, 보호자의 역할이 이전 세대와는 크게 다릅니다. 준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무지가 기쁨이다'라는 옛말은 이제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준비는 행위를 낳습니다.

“봉사하도록 부름 받음”, *성도의 벗*, 1996년 7월호, 44쪽.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배우려는 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고 충실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운명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배울 수 없는 진리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배움을 중단합니다. 배울 수 없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충실하다면 절대 그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정규 교육이 어떤 이유로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배울 수 있음을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위대한 학습자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배울 수 있다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Do What They Think You Can't Do,” *New Era*, Oct. 1989, 6.

주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제 삶을 보살피셨듯 여러분의 삶도 세심하게 보살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시며 또한 그 일을 하기 위해 여러분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도 아십니다. 여러분은 그분께서 여러분이 배울 기회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그러한 기회를 완벽하게 인식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삶에서 영적인 것들을 우선시한다면, 어떤 특정한 것을 배우도록 인도되는 축복을 받을 것이며,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Real-Life Education,” *New Era*, Apr. 2009, 6.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배우라는 명을 받음

“교회 회원들에게 교육은 단지 좋은

생각이 아니라 계명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 전에 있었던 일이나 지금 있는 일이나 머지않아 일어날 일, 국내에 있는 일이나 외국에 있는 일'을 배워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88:79~80 참조]”

“어떠한 경제 상황에서도 적용되는 두 가지 원리”,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58쪽.

끈기 있는 인내

“열 살 때, 저희 가족은 낯선 지역에서 난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늘 학교에서 모범생이었지만, 서독에 도착한 후에는 달랐습니다. ……

교과목 대부분이 생소하고 낯설었기 때문에 저는 뒤처졌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학교에 다니기에 지능이 모자라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도 제게는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꾸준하고 일관된 노력, 즉 끈기 있는 인내가 제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어려운 과목들이 이해되었고, 영어까지도 그랬습니다. 제가 한결같이 노력을 기울인다면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우쳤습니다. 비록 한 번에 그렇게 되지는 못했지만, 인내하는 가운데 결국은 해냈습니다.” ■

“계속 인내하십시오”,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57쪽.

진정한

배움의

단지 학교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으십시오.

길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교회 잡지

“**중요**은 교육을 받으십시오.” 이 말은 십 대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보편적인 충고인지 모른다.

많은 사람이 이런 충고에 귀 기울이지만, 그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받는 교육에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어 내는 듯하다. 단지 성적, 학위, 또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들과 단지 “학교를 마치는” 사람들 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그것은 타고난 능력보다는 다음과 같은 특정한 우선순위, 태도, 기술과 관련이 있다.

우선순위

1. 영적인 배움을 추구한다.

궁극적인 성공을 위해,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의 다음 권고를 따른다.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영적인 배움이어야 합니다. ……”

영적인 배움을 우선시하는 것이 현세적 배움을 간과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반대로 우리는 영적인 배움을 통해서 현세적 배움에 대한 목적을 찾게 되며 더욱 열심히 배우려는 동기를 얻게 됩니다.

영적인 배움의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힘든 결정들을 내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영적인 것을 부차적인 것으로 두려는 의도적인 선택은 결코 해서는 안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균형이 깨진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중요한 것을 너무 소홀히 해도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됩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¹

2. 균형을 잡는다. 균형이란 자신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아는 것을 뜻한다. 균형을 잡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면 주변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균형이 깨진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중요한 것을 너무 소홀히 해도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²

3.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사소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나 충분한 수면이 큰 차이를 가져온다. 교실에서 졸지 않을 방법을 고민하는 것보다 분명 그것이 훨씬 나은 일일 것이다. 학습을 위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거듭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것들을 위해 (종종 오락을 위해) 잠을 포기한다. 충분한 수면을 우선순위에 둔다.(그러나 그것도 과해서는 안 된다. 위의 2번과 교리와 성약 88편 124절을 참조한다.)

태도

1. 여러분은 자신의 교육(그리고 자신의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다.

아직도 모든 숙제와 학교 과제물을 하는 데 부모의 도움에 의지하는 십 대들을 알고 있는가? 또는 나쁜 성적에 대해 “선생님이 나를 안 좋아하셔서 그래.”라고 설명하거나 다른 상황을 탓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자신의 교육에 대해 책임을 진다. 여러분은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배울 수 있고, 또 얼마나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알고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

2. 배움과 성적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상징물(성적)을 그것이 나타내는 개념(배움과 노력)과 혼동하지 않는다. 점수가 중요한 평가 척도이기는 하나, 여러분이 얻는 지식과 기술이 점수의 높고 낮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한다.

3. 자신의 가치를 상, 점수, 학위와 같은 외적인 것들과 연관 짓지 않는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자신의 타고난 가치를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성취가 외적인



독서를 즐기고 책, 잡지, 웹사이트 등 무엇이든
정보와 영감을 주는 좋은 것을 매일 읽으라.

보상을 가져왔든 아니든 행복할 수 있다. 잘하려고 노력하고 학업 목표들을 달성하되, 상으로 자신을 정의해서는 안 된다.

4.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똑똑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 혹 자신의 타고난 능력으로 다른 사람보다 학업을 쉽게 느낀다 하더라도, 자신의 성공을 노력의 결과로 보아야지 선천적 재능의 결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혹 학업이 쉽지 않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노력이 재능의 차이를 메꿔 줄 것이다. 이런 태도는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학교를 떠나 직업 세계에 들어섰을 때 그러할 것이다. 진정한 배움에는 지름길이 없으며, 인생을 거짓으로 살 수는 없는 일이다.

5.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연결해 본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태도는 배움에 장애가 된다.

6. 배움은 그 자체가 보상이다.

많은 사람이 교육을 어떤 결과를 위한, 즉 인생에서 남보다 앞서고 좋은 직업을 갖는 등의, 결과를 위한 수단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으나 배움 그 자체를 목표로 할 때 더 행복하고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늘 "이게 시험에 나오나요?" 또는 "이걸 다시 활용할 때가 올까요?"라는 질문만 일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7. 실패할 가능성 때문에 기회 앞에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 지금 힘든 일들을 기꺼이 하려 할수록 다음에 오는 것을 맞이할 준비가 더 탄탄해진다. 예를 들면, 수강할 과목을 단지 쉬운 것들로만 고르는 것은 자신을 저평가하는 일이며 재능을 묻어 버리는 행위이다.

8. 호기심을 갖는다. 호기심이 있고 질문을 할 때 훨씬 더 많이 배울 것이다. 또한 사물에 관심을 갖다 보면 여러분은 더 흥미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배움은 언제나 어디서나 일어나며 학교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기억한다.

9. 여러분은 할 수 있다. 어렵다와 불가능하다는 다르다. 배움을 향한 길이 어려울 수 있으나 여러분은 할 수 있다.

배움은 여러분이 지상에 온 이유 중 하나이다.

기술

1. 좋아하는 것을 배우고,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진정으로 끌리고 관심 가는 것들을 찾아 탐구한다. 동시에 여러분이 배우는 모든 것의 가치를 알아보는 법을 배운다.

2. 독서를 즐긴다. 매일 좋은 것을 읽는다. 책, 잡지, 웹사이트 등 무엇이든 정보와 영감을 주는 것들을 읽는다. 좋은 자료를 읽는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학업이 우수하며 풍성한 삶을 산다.

3. 자신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인식하고 스스로에게 가장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아는 것은 삶의 중요한 기술이다.

4.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고,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한다. 믿기 어렵겠지만, 도움을 청하는 것 역시 '기술'이다. 스스로는 어찌지 못하는 상황을 깨닫고 늦기 전에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은 큰 차이를 가져온다.

5. 시간을 관리한다. 시간 관리란 여러분이 자신의 우선순위라고 말하는 것들이 실제로도 여러분의 우선순위인 것을 뜻한다. 스스로 편안하게 느끼는 체계를 세워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한다. ■

주

1. Henry B. Eyring, "Real-Life Education," *New Era*, Apr. 2009, 5.
2. 엠 러셀 벨라드, "여러분의 삶에서 균형을 유지하십시오," *리아호나*, 2012년 9월호, 50쪽.

더 큰 즐거움 속으로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참으로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

(교리와 성약 88:118)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해 줄 때, 여러분도 그들이 여러분의 표준을 이해하도록 더 잘 도울 수 있다.

리차드 엠 롬니
교회 잡지

미 국 애리조나에 사는 17세의 캐시 알은 종종 친척들에게 자신이 후기 성도로서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에 대해 설명해야 했다.

캐시는 이렇게 말한다. “한번은 숙모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숙모는 ‘너희 교회는 담배나 술을 못하게 하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술과 담배가 좋지 않다고 가르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시며, 저는 제가 아는 바에 따라 담배나 술을 하지 않을 것을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캐시는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담배와 술은 제 표준에 어긋나는 것이예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나았다고 말한다. 물론 때로는 후자가 아주 적절한 대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캐시는 이렇게 덧붙인다. “숙모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순종을 강요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의지가 있다는 제 설명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셨어요. 제가 술과 담배를 하지 않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씀드리자 기꺼이 저를 지지해 주셨죠.”

상대방에 대한 관심 보이기

캐시의 경험이 보여 주듯이, 대화할 때 상대방에 대해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자문해 보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그들에게 교회 표준을 설명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그들은 어떤 동기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 단순히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호기심 때문인가? 직접적인 질문을 하며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여러분의 대답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그들의 관점에 동의해 주기를 바라며 시험 삼아 질문하는 것인가? 그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



더더욱 와야 하는 이유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교회의 표준대로 생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와야 합니다! 이 교회는 불안전하고, 분투하며, 지친 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교회는 온 마음을 다해 계명을 지키고자 소망하는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비록 아직은 모든 계명에 능숙하지는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와서 우리의 함께합시다”,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23쪽

대화에 참여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 교회 표준대로 생활하고 표준을 다른 이들과 나눈 경험을 일지에 기록한다.
- 금식 간증 모임이나 청소년 모임에서 주님의 표준에 대한 간증을 나눈다.
-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연차 대회에서 전한 말씀인 “준비, 축복으로 향하는 길”(리아호나, 2010년 5월호, 64쪽)을 읽는다. 몬슨 회장은 데이트, 우정, 정직, 그 밖의 표준에 대해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싶은 권고를 목록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지에 관해 영으로부터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그 속삭임을 따르면 된다. 그 자리에서 바로 성찬식 말씀 수준의 설명을 하거나 교리적인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라. 그저 여러분의 영적 목표와, 어떻게 그런 목표를 세우게 되었는지를 설명만 하면 된다.

여러분이 모든 답을 알지는 못한다는 점을 알려 주고, 그들이 찾는 것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선교사들과 같은 이들을 소개해 줄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가 아니다. 그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고 자신이 믿는 것을 단순하게 나눌 여유를 가지라. 적절할 때 간증을 덧붙여 성신이 그 진리에 대해 증거할 수 있게 하라. 이것이 나의 표준과 내가 그것을 따르는 이유에 대해 다른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니파이전서 10:17~19 참조)

복음대로 생활하는 모범

프랑스의 로랑 비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것이 어떤 기본인지를 안다. 열다섯 살 때 교회 모임에 처음으로 참석한 그는 회원들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들의 행복한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묻고 싶은 질문이 많았어요. 그 청소년들은 제가 다니던 학교 학생들과는 달리 술 담배를 하지 않았고, 청남 청녀들은 서로에 대해

존중심을 보였어요. 모두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 보였죠.”

그는 16살인 장 미셸 엘과 14살인 그의 여동생 이브와 친구가 되었다. 로랑은 당시의 일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한다. “그 친구들은 지혜의 말씀이 건강한 삶의 원리를 가르쳐 준다고 설명했어요. 순결에 대한 견해도 이야기해 주면서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충실한 남편과 아내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이라고 설명해 주었죠.

그 친구들은 자신이 어떤 표준을 지키는지를 말로만 설명해 준 것이 아니었어요. 그 친구들이 자기가 믿는 바대로 생활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목격했죠.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행복해지고, 우리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왜 그런 방식으로 생활하는지를 알고 싶어 할 거예요.”

로랑은 표준에 대해 무수한 대답을 늘어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님을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믿는 바대로 생활하는 것이다. 그런 후에 할 일은 경전에서 일러 준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베드로전서 3:15) ■

복음 질문에 답하기 위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면 lds.org/go/55914320에 접속한다.

노 커싱 클럽(욕설 반대 동아리)

한 청년이 자신의 표준을 설명함으로써 어떻게 지역과 전국을 넘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는지 lds.org/go/nocussing에서 한번 살펴보자.

조셉 센구바

나는 우리나라의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다닌다. 얼마 전에 나는 반 친구들의 투표로 반 대표로 뽑혔다. 어느 날, 무엇을 가르칠지를 계획하던 중 우리 교회 소책자에 나오는 순결의 법이 눈에 띄었다. 나는 반 친구들에게 순결에 관해 가르치기로 정하고 전임 선교사들에게 소책자를 부탁하여 그것을 학급 지도 시간에 나눠 주었다.

학급 지도를 마친 후에 많은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으므로, 나는 물론경을 포함하여 더 많은 교회 자료를 주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려면 교장 선생님의 승인을 받았어야 했는데, 나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은 나를 교장실로 부르셔서 어느 교회에 다니냐고 물어 보셨다. 우리 교회 이름을 말씀드리자 교장 선생님은 우리 교회의 "성경"을 학생들에게 나눠 준 이유를 물으셨다. 나는 그 책을 요청한 학생들에게만 주었다고 말씀드렸다.

우리 교회에 관한 나의 긴 설명을 들으신 후, 교장 선생님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자신의 믿음을 분명히 하셨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건 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너는 이 학교를 떠나야 하겠구나. 안 그러면 내가 많은 선한 학생들을 너희 교회로 개종시킬 테니 말이다."

교장 선생님은 나에게 교회와 교육의 기회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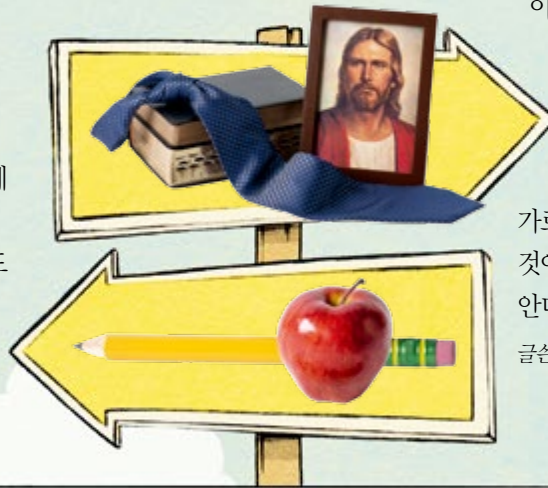
교장 선생님은 전체 학생을 소집해서 내가 물론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퇴학을 시켜야 한다는 점과, 나를 따르는 학생들도 학교를 떠나야 할 것이라는 점을 알리셨다.

소집 후에 교장 선생님은 나에게 교회와 교육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했느냐고 물으셨다. 나는 내가 아는 것, 즉 주님이 그분의 참된 교회를 회복하셨다는 사실을 옹호하라고 속삭이는 영을 느꼈다. 나는 떠나기 전에 선생님께 간증을 전했다. 교장 선생님은 다음 주에 다시 와서 내가 더 이상은 그 학교 학생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챙겨 가라고 하셨다.

한 주가 지나 다시 학교에 갔을 때, 교장 선생님은 마음을 바꾸셨다! 선생님은 학교를 떠나라는 말씀을 더는 하지 않으셨다. 나는 정말 기뻐다. 무엇보다도 내가 참되다고 믿는 것을 위해 내가 굳건히 설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경험으로 나는 참되다고 알고 있는 것을 언제나 옹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실 것이다. 내가 우리 교회를 거부했다면, 학생들은 내가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 진실하지 않다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내가 진리를 안다는 사실을 안다. ■

글쓴이는 우간다 센트럴 지역에 산다.



내 선택은 한 가지뿐이었다

내가 우리 교회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학교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다.

해답을 찾아서

제 친구는 늘 자신을 비하하고 자책합니다. 그 친구가 자존감을 갖도록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 친구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따라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지 겸손하게 보이고 싶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칭찬 혹은 위로의 말을 듣기 위해 자기 비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위로하면서 조심스럽게 그 친구가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주의를 돌리도록 해 보세요. 그러면 자신에 대한 만족감과 자존감이 커지고 진정으로 마음이 겸손해질 수 있게 됩니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함으로써 겸손해집니다.”(“교만과 신권”,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58쪽)

만약 친구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면, 친구의 부모님이나 학교 상담 선생님, 또는 감독님께 이야기해 보라고 권유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그분들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하세요. 그분들은 필요하면 전문적 도움까지 동원하여 그 친구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

세계 불친절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보이죠?

구 주께서는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며 너희를 악의로 이용하는 자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태복음 5:44)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육에 속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므로 쉽지 않습니다. (모사이야서 3:19 참조)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몇 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바라보려 노력하십시오. 이것은 단지 괜찮은 생각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를 마음에 깊이 스며들게 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변할 것입니다.

- 구주께서 우리에게 품으라 명하신 사랑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임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 모두에게 내려주신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모로나아서 7:48) 되어야 합니다.
- 불친절한 사람들에게 봉사할 작은 기회들을 찾으십시오. 그들이 언제 변화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설혹 그들이 변하지 않더라도 그 친절한 행위로 여러분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 그들과 복음을 나누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와 같이 단순한 진리에 대한 간결하고 굳건한 간증 한 마디라도 좋습니다. ■





가즈히코 야마시타 장로
칠십인 정원회

“신앙으로 나아가라”라는 말은 우리 삶의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찬 송가 “주 섬기라” (찬송가, 145장)에서 전진하세를 일본어로 번역하면 *すすめ(스스메)*가 됩니다. 그 단어는 몇 해 전에 제가 일본 후쿠오카에서 스테이크 회장이었을 때 있었던 어떤 일 때문에 저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회장인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이 방문하셨을

때, 저는 그분을 수행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듣기 위해 300명의 전임 선교사들이 모인 한 모임에서는 성령이 예배실에 가득했으며, 많은 사람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주 섬기라”를 일본어로 부르며 *すすめ,すすめ(스스메, 스스메)*를 거듭 외쳤습니다. 힝클리 회장은 옆자리에 앉아 있는 선교부 회장님에게 *すすめ(스스메)*의 뜻이 무엇인냐고 물으셨습니다.

선교부 회장님은 그 단어는 ‘전진하라’를 의미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모임은 훌륭했습니다. 힝클리 회장은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모임 후에 회장님은 선교사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시고 건물을 떠나셨습니다. 회장님은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제 차에 타시면서

저에게 일본어로 “*すすめ(스스메)*!”라는 그 한 마디를 하셨습니다.

훌륭한 메시지

그 단어가 저에게는 다음과 같은 모토가 되었습니다. “전진하자! 긍정적인 사람이 되자! 신앙으로 미래를 맞이하자!” 이 모토는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그 소책자에는 “신앙으로 나아가감”이라는 제목 아래 주님의 표준에 순종할 때 오는 축복이 나오고, 이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이 혼자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욱 많은 것을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게 하실 것입니다.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이해력을 넓혀 주시며,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써 더욱 강한 간증을 얻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여러분을 향한 그분들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2011, 43쪽)

복음은 우리에게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가르칩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태복음 7:7) 저에게는 이 성구가 *すすめ(스스메)*를 의미합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

사무라이란 중세와 현대 초기 일본의 상급 무사를 말합니다. 사무라이 중 한 사람인, 1867년에 사망한 료마 사카모토 이야기는 지금도 일본인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가 여전히 그토록 인기를 얻는 이유 중 하나는 그가 늘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すすめ (스스메)!

해녀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복음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낙담할 때라도 여전히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일곱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 1. 매일 근면한 태도를 보인다.** 기도하십시오. 경전을 연구하십시오. 계명을 지키십시오. 모임과 세미나에 참석하십시오. 가정의 밤에 참여하십시오.
- 2. 회개한다.** 잘못을 했을 때에는 용서를 구하십시오.
- 3. 성신에 귀를 기울인다.** 성신의 속삭임을 따르십시오.
- 4. 신뢰를 쌓는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지지하십시오. 부모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십시오.
- 5. 구주에 대해 배운다.**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그분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가실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88:63) 영이 구주께서 살아 계심을 증거해 줄 것입니다.
- 6. 자신에게만 집중하지 않는다.** 자신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을 잊어 버리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마태복음 10:39; 16:25 참조)
- 7.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신뢰하시므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주님의 도움

“마땅히 해야 하는 방식으로 생활하려 노력하고 전진할 때, 분명히 주님의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강하고 담대하라,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69쪽.



그는 아무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다.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갔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이념에 영감을 받아 새 정부를 수립하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암살을 당했는데, 다른 사무라이의 칼에 여러 번 베인 상황에서조차도 포기하지 않았습다. 그는 일어서서 앞으로 걸어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며, 때로는 적들에게 공격받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여 희망을 버리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すすめ(스스메)*라고 말하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일어서서 신앙으로 걸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정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구주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신명기 31:8).

행복의 근원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다는 지식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고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점, 강점, 좋은 점, 나쁜 점, 어려움과 고난 등 우리에게 관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그분의

아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구주입니다. 그분은 제 가족의 구주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구주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십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분의 교회임을 알며, 또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살아 있는 선지자임을 압니다.

만일 여러분이 긍정적인 태도로 선한 것을 추구한다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과 선한 것에 대해 생각한다면,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진할” 힘을 얻게 되며, 시련을 이기고 신앙으로 계속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

표준을 통해 얻는 힘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웹사이트 standards.lds.org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

엘마처럼 기도했다

“이는 그가 신앙으로
기도한 연고였더라.”
(엘마서 31:38)

다니엘 마우리시오 도스 산토스

나의 절친한 친구는 2주간 나와 함께 교회에 갔었다. 하지만 다시 초대하자 그 친구는 교회에 더 이상 가지 않겠다고 답했다. 주말 동안 잠도 자고 밖에 나가 친구들과 재미있게 보내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 뜻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슬펐다. 친구가 교회에 와서 영을 느끼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얻기를 진심으로 바랐기 때문이다. 집에 온 나는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슬픔을 말씀드리고 위안과 인도를 구했다.

기도를 마친 후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다. 아버지는 친구도 내일 교회에 가느냐고 물어 보셨다. 친구가 했던 말을 말씀드리자, 아버지는 내가 걱정하고 슬퍼한다는 것을 알아차리셨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넌 네가 할 일을 한 거란다. 사람들에게겐 각자 선택의지가 있어. 넌 씨앗을 심은 거야.” 아버지의 신앙이 담긴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평온해졌다.

주일학교를 준비하기 위해 엘마서

30장부터 32장까지를 읽었다. 31장에서 엘마는 주님의 방법을 거부하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기 시작한 조람인을 위해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 나는 그 말씀을 읽으며 영의 감동을 받았고, 나 역시 기도해야 한다는 영감을 받았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절친한 친구를 위해 엘마와 비슷한 기도를 드렸다. 엘마처럼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 친구의] 영혼은 귀하며, [그는 저의] 형제[이니], 그러므로 주여, [저]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사, [제가 저의 형제를] 다시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엘마서 31:35)라고 말씀드렸다.

다음 날, 교회에 갈 준비를 다했을 때, 비록 그 친구와 함께 교회에 갈 수는 없게 되었지만 엘마처럼 신앙으로 기도한 덕분에 마음은 평온했다. 교회로 출발할 때,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 친구는 벌써 집을 나섰냐고 물으며 자기 집에 들러서 자신을 태워 가 달라고 부탁했다. 그날 일요일 모임은 훌륭했으며, 나는 영이 내 친구에게 진리를 증거해 주었다는 것을 안다.

그날 몰몬경과 신앙의 기도 덕분에 축복을 받은 사람은 단지 내 친구만이 아니었다. 주님과 몰몬경에 대한 나의 간증 또한 강화되었으며, 그 간증이 있었기에 나는 결국 선교사로 봉사하게 되었고 진리를 증거할 수 있었다. 나는 우리가 몰몬경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며, 그 책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가르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임을 안다. ■

글쓴이는 브라질 연방지구에 산다.



진정한 인기의 열 가지 비결

인기의 비결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신약전서에 나올까?

커스 캠벨

“우리가 1등이야!” 고등학교 미식축구 경기에서 응원단장이 소리쳤다. 나는 그 아이의 고른 치아와 환한 웃음에 감탄했다. 그 아이가 웃으며 여자아이들과 이야기하고 남자아이들과 시시덕거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저 애는 좋겠다.’ 하고 생각하며, 나는 외로움을 느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 직장 때문에 3년 또는 5년마다 이사를 해야 했다. 그래서 우리 언니도 나도 지속적인 우정을 쌓기가 쉽지 않았다.

그 응원단장은 단정치 못한 옷차림에 술을 마시는 파티에 다니는 애로 유명했다. 그 아이를 지켜보자니 나도 그렇게 인기를 과시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친구를 너무도 간절히 원한 나머지 나도 그 아이처럼 되기 위해 내 표준을 낮춰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깐 했다.

언니와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동안 나는 자기 연민에 빠진 채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다. 이 외로움과 불안을 없애 줄 비결을 알려 달라고 했다. 당시 나는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큼은 강한 아이였다.

곧바로 마음속에 ‘자신에 대한 생각은 그만하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게 비결이야?’ 하는 생각에 실망스러웠다. ‘그게 인기를 얻는 데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지?’

그 주말 무렵에 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관한 내용을 읽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내게 집중하기보다는 타인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려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거기에 열거된 사랑의 특성을 실천에 옮겼다. 그렇게 하자 학교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다. 내가 배운 귀중한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사랑은 오래 참고

나는 학교에서 사람들을 좀 더 참을성 있게 대하려고 노력했다. 체육 시간에 한 남자아이가 나를 괴롭혔지만 그의 나쁜 의도에 친절함과 웃음으로 대처하려 노력했다. 마침내 그는 괴롭힘을 멈추었다. 그해 연말 즈음에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언니와 나는 우리 학교 농구 선수인 한 여자아이의 재능을 질투하며 그 아이를 신랄하게 비판했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렇게 하는 대신 그 아이의 승리를 기뻐해 주기로 했다. 또한 나의 재능을 키우기 시작했다. 그러자 씁쓸한 마음이 없어지고 훨씬 더 행복해졌다.

사랑은 온유하며

우리 반의 한 여자아이는 인기가 있던 없든 모든 아이에게 친절하게 대했는데, 난 늘 그렇게 하는 그 아이의 모습에 감탄하곤 했다. 나는 그 아이의 모범을 따르며 사람들에게 친절을 보일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나는 내가 높은 도덕 표준에 따라 생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온유하고 만인을 사랑하신 구주를 생각하면서 내 태도를 바꾸기로 했다. 겸손하고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자 사람들도 나의 친구가 되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나는 주님을 사랑했고, 높은 도덕 표준을 따랐다. 그런 표준을 굽혀서 내가 불행해질 일은 하지 않기로 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전에 한 선생님이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씀을 하셨다. 나는 거기에 반응하는 대신 선생님에게 힘든 일이 있으시냐고 여쭙었다. 선생님은 그렇다고 하시며 사과하셨다. 선생님의 말은 개인적인 문제에서 나온 것이지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것이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후기 성도 친구들은 나에게 험담과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일이 나쁜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나는 험담을 피하려 노력했고, 누군가가 좋지 않은 것을 말하려 할 때마다 화제를 바꾸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나는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고 낙관적인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 내가 태도를 바꾸자 사람들은 내 곁에 머물며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들은 나와 더 자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언니가 병을 심하게 앓아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게 되자 언니의 많은 친구들은 언니의 이상한 걸음걸이 때문에 언니를 저버렸다. 나는 상처받고 아파하는 언니를 보면서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겪을 때 그 곁에 있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참되고 지속적인 우정을 많이 쌓을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외로움은 자취를 감추었다. 인기는 우정이라는 진정한 보물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며, 존중은 복음 원리에 따라 생활할 때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에게 오래 지속될 우정을 얻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
글쓴이는 미국 워싱턴에 산다.

사랑은 영적인 은사이다

물 물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인 자애를 키우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모로나이사 7장 44~48절을 공부해 보면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모로나이사 7:48) 되는 법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성약의 길

확신을 가지고 ♩. = 48-62

작사: 마빈 케이 가드너
작곡: 반야 와이 왓킨스

C Gm C

1. 성 약 이 란 주 님 과 맺 - 은 언 약 나 의 약 속 이 네 내
(2. 나) 침 레 성 약 지 키 기 위 해 주 예 수 이 름 받 들 며 주

Em A G D7 G

가 주 님 말 씀 지 키 - 면 주 축 복 주 려 하 시 네 나
기 억 하 고 계 명 지 키 리 충 실 한 주 제 자 되 리 기

Gm C F Fm Bb Eb G7

계 명 지 키 겠 다 약 속 해 주 님 의 빛 따 라 살 면 끝
빠 게 성 약 새 롭 게 하 리 안 식 일 성 찬 취 하 며 난

C Dm C Dm G7

이 없 는 축 복 과 기 -쁨 주 님 약 속 하 신 다 네 기
언 젠 가 성 전 에 가 - 서 성 스 런 성 약 맺 으 리 억 하

© 2014 마빈 케이 가드너와 반야 와이 왓킨스 판권 소유, 허가를 받아 사용함.
이 악보는 교회나 가정에서 반주나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복사할 수 있음.
복사할 때마다 이것을 표시해야 함.



C Gm7 C Gm7 C Am Dm G7

리 라 나 의 성 약 하 늘 아 버 지 께 로 향 하 는 길

Am D C D7 Dm C , F C ,

성 약 충 실 하 게 지 키 리 내 성 약 의 길 안 전 한 그 길 구

1. Dm G7 C 2. Dm E Am D7

주 의 사 랑 안 에 2. 나 주 의 사 랑 안 에 내

Dm C , F C , Dm 조금 느리게 G7 C

성 약 의 길 안 전 한 그 길 구 주 의 사 랑 안 에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입니다.

왜 계명에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목표는
우리가 영원히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계명만 골라서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의 계명은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 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율법의 순종이
자유입니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86~88쪽에서 발췌.

연차 대회에서 받은 응답



미아(왼쪽)와 애비

애비 에이치, 7세, 미국 네브래스카

에드워즈 증조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저와 여동생 미아는 무척 슬펐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증조할머니를 다시 만나고 영원한 가족이 될 거라고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에드워즈 할머니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을 연차 대회를 통해 알 수 있도록 기도드려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에드워즈 할머니께서 행복하게 지내시는지 알고 싶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미아는 에드워즈 할머니께서 예전에 돌아가신 증조할아버지와 이모할머니와 함께 계시는지 알고 싶어서 기도드렸습니다.

연차 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에서,

저희는 그 답을 선지자의 말씀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몬슨 회장님께서 세상을 떠나는 일은 마치 먼저 죽은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로 가득 찬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아는 에드워즈 증조할머니께서 증조할아버지와 이모할머니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몬슨 회장님은 물문경의 한 부분을 읽어 주셨는데, 거기에는 의로운 영은

다음 달에는 연차 대회가 열릴 것입니다. 대회를 앞두고 기도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어떤 대답이 주어지는지 귀 기울여 들어 보는 걸 잊지 마세요!

행복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앨마서 40:11~12 참조)¹ 에드워즈 할머니는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하려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미아와 저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에드워즈 할머니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할머니의 모범을 따라 옳은 것을 선택하면, 언젠가 다시 할머니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인생이라는 경주", 리야호나, 2012년 5월호, 93쪽.

노란색 표지의 책

란돌 살라자르 키로가
실화에 근거

볼 리비아에 사는 란돌은 학교를 좋아하고
교과서도 소중히 여기는 어린이입니다. 특히
재미난 그림이 그려진 셋노란 표지의 책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그 노란색 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함께 찾아봐
주셨지만, 어디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란돌은 무척 슬펐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기도하자꾸나. 하나님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려 보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아버지에게 한 가지 생각이 번뜩였습니다.



바로 그때, 삼촌의 가게로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의 손에는 표지가 셋노란 그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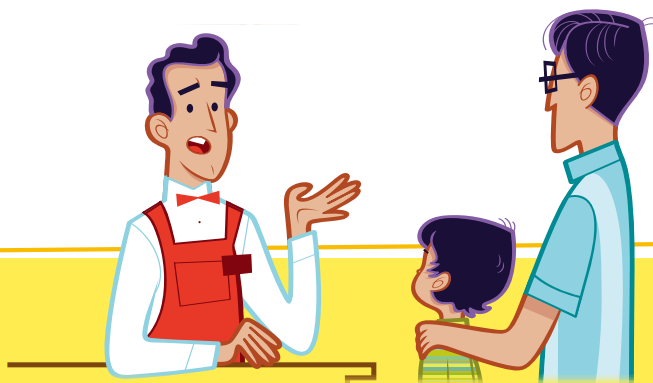
란돌의 아버지는 손님들에게서 그 책을 샀습니다. 란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 주신 것에 감사드렸습니다. ■

글쓴이는 볼리비아에 산다.



“삼촌에게 이야기해 보자. 네 사촌들도 똑같은 책이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 그 책을 빌리면 되지 않을까?”

란돌은 ‘맞아! 그렇게 되면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란돌의 가족은 삼촌이 운영하는 서점으로 갔고, 노란색 책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촌들은 그런 책을 보지 않는다는 대답만 듣게 되었습니다.

란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 주시지 않은 것일까요?

나 신앙으로 기도합니다

제니스 캡 페리

나 매일 같이 하나님께

신앙으로 기도할 때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

감사드리고 싶어요

겸손히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아멘 합니다.

(Children's Songbook, 14; 성도의 벗,
1991년 3월호, 53쪽)



애미 제인 레빗의 인터뷰 노트에서

여러분의 이름에는 어떤 특별한 뜻이 있습니까? 8살인 루카의 이름은 “빛”을 뜻합니다. 루카의 부모님은 밝고 희망찬 미래를 살 수 있음을 늘 기억하라는 뜻으로 이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저는 한국에 사는 루카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들이 정말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곳이거든요!

안녕,
친구들!

저는 가족 중에서
만이며, 제
여동생의 이름은
에리카입니다.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두 가지 언어를 할 줄 아는데, 한국어와 영어로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전 8시 30분에 등교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학교에서 지냅니다. 그런 다음 학원이라고 부르는 방과 후 학교에 가서 공부를 더 합니다. 그리고 피아노와 미술 수업을 듣습니다.



나 성전 보고 싶어!

저는 축구를 좋아하며 일 년 내내 실내 구장에서 공을 찹니다.



저는 미국과 대한민국 두 개의 국적이 있어서, 교회에서 미국식 프로그램인 보이 스카우트 활동에도 참여합니다.



출발해 봅시다!

루카는 좋아하는 것들을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을 가방에 넣어 가고 싶나요?

추석은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입니다. 추석은 추수를 축하하는 한국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들 이야기

복음을 나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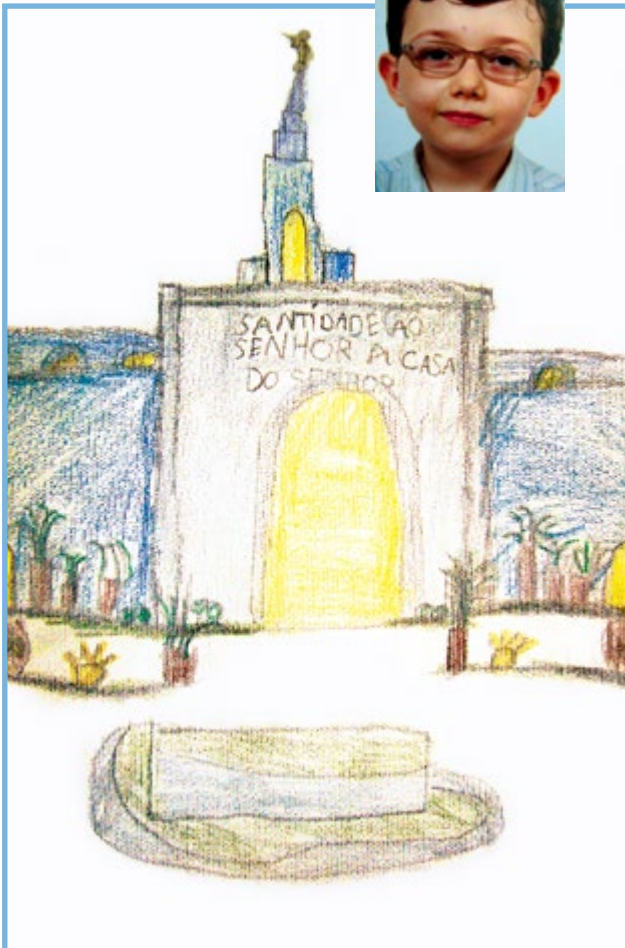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과 반 친구들에게 복음을 나눕니다. 선생님께 리아호나를 보여 드리고 물몬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비록 교회 회원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선생님과 친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과 복음, 물몬경에 대한 간증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 피, 9세, 아르헨티나

나 성전 보고 싶어, 아이비 에이, 7세, 미국 조지아



엔조 브이, 6세, 브라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행복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프린스 험프리 비, 5세, 필리핀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오고자 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기꺼이 돕고자 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115쪽.

삽화: 진 메드슨

복음 생활은 우리 가족을 축복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축복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이나, 가족 중에서 새로 태어난 동생 같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알아차리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니파이에 관한 이 이야기에서

니파이와 그의 가족들이 복음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받았던 축복을 찾을 수 있는지 보세요.(이 이야기는 니파이후서 5장에서 읽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니파이에게 레이맨인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로 떠나가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에 니파이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날 동안 광야를 여행했습니다. 마침내 터를 잡고 터전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씨를 뿌렸고, 농작물은 잘 자랐습니다. 가족도 많이 길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물과 성전을 지었습니다. 니파이는 경전을 가르쳤고, 사람들은 계명을 지켰습니다.

니파이는 자신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았더라”(니파이후서 5:27)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말은 행복을 낳는 삶의 방식을 택했다는 뜻입니다. 복음에 따라 생활할 때, 우리는 행복을 축복받습니다. ■



경전

신약개조 제13조

가족과 대화하기 위한 아이디어

여러분의 가족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축복 찾기

축복을 찾는 탐정이 되어 보세요! 발자국을 자세히 보고 왼발과 오른발을 찾아 짝을 맞추어 보세요. 왼쪽 발자국은 복음에 따라 생활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른쪽 발자국은 그렇게 행할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발자국에 적힌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에 머물 수 있습니다.



콧노래로 찬송가를 불러요

올리비아 코리 랜들
실화에 근거



이사이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요. 초등학교에서 노래를 부를 때 마음이 행복해지거든요. 이사이는 자신이 부르는 노래를 예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느 날 엄마와 아빠가 성찬식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어요. 이사이도 부르고 싶었지만 가사를 알지 못했어요.



엄마가 이사이에게
“시무룩해 보이는구나.”
하고 말을 건네셨어요.
이사이는 “가사를
몰라서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다음 주에는 콧노래로 찬송가를 불러 보는 거야.”

이사이는 기분이 한결 좋아졌어요. 콧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거든요.



다음 주에 엄마와 아빠가 찬송가를 부르는 동안, 이사이는 콧노래를 불렀어요. 이사이는 행복했어요. 예수님은 이사이의 콧노래도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할머니의 가장 예쁜 꽃

카렌 니콜레이슨 벅스터

할머니 화단에서 꽃을 따지요.

파랑, 보라, 분홍, 빨강, 예쁜 꽃을 따지요.

할머니는 내 얼굴을 쓰다듬고 뽀뽀하며 말하지요.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나의 가장 예쁜 꽃!”



리그랜드 리차드(1886~1983)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보기 드문 젊은이들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선교사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선교사는 한 여성 단체가 주최한, 호텔에서 열린 오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책임자인 한 여성이 식탁 위에 여분의 접시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군인이 지나가면, 이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자고 초대할 거예요.” 그리고 한 몰몬 군인이 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커피가 나왔을 때, 그 군인은 커피 잔을 건드리지도 않았습다. 만약에 그 군인이 “뭘, 부모님도 멀리 계시고 감독님이 보시는 것도 아닌데, 이 많은 여성들 사이에서 남자는 나쁜인데, 커피 한 모금 마신다고 문제될 게 있을까?”라고 생각했다면 얼마나 편했을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 군인은 자신을 암흑에서 놀라운 빛으로 부르셨던 주님을 향한 찬양을 보여야 했으므로, 커피 잔을 건드리지도 않았습다. 사람들이 차를 권했으나 그것도 사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군인에 대해 어마어마한 궁금증이 생겼습다. 그래서 군인은 자신의 성장 과정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사람들은 담배에 불을 붙여 돌렸습니다. 물론 젊은 군인은 담배도 거절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함께 있던 한 여성은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만약 몰몬 장로들이 찾아오면, 안으로 맞이해야겠어. 오늘 함께 식사한 이 군인처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더 알아볼 거야.”

미 동부에 있는 사관학교에 간 또 한 명의 몰몬 군인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령관이 부대로 오면서 그를 위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접시



“자네는 왜
우유 잔을 들고
건배했나?”

옆에 술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때가 되자 모든 미래의 장교들이 술잔을 들고 일어서서 도착하는 사령관을 위해 건배했습니다. 한 젊은이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는 우유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이 사령관의 눈에 띄었습니다. 접대가 끝난 후, 사령관은 그 군인에게로 곧장 가서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우유 잔을 들고 건배했나?”

“저, 사령관님.” 군인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단 한 모금도 술을 마신 적이 없습니다. 손도 대지 않습니다. 제 부모님도 제가 그렇게 하길 바라십니다. 저는 사령관님께서도 그러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건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익숙한 음료로 건배를 한다면 사령관님께서도 흡족해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령관은 “아침에 사령부에서 보고하라.”고 명하며, 정확한 시각도 말해 주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군인이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에 사령부로 갔을 때, 사령관은 그를 참모로 임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던 그것에 상관없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할 용기를 지닌 사람들과 나는 함께하고 싶네.”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는 보기 드문 젊은이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보기 드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이와 비슷한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적합한 결정을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

“Stories from the General Authorities: An Uncommon People,”
New Era, Feb. 1974, 28-29에서 발췌.